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인식론적 맥락주의에 대한
전통적 불변주의 대응 비판적 검토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김 병 일

인식론적 맥락주의에 대한
전통적 불변주의 대응 비판적 검토

지도교수 김 기 현

이 논문을 철학과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5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김 병 일 (성명)

김병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 년 7 월

위 원 장 _____(인)
부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국문초록

인식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식귀속문장의 발화가 지니는 진리치 역시 발화 맥락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식 귀속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이다. 이런 입장을 전통적 불변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지식의 폐쇄성 원리를 이용한 일상적 지식에 대한 회의주의적 논변과, 일상적으로는 지식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도 인식적 기준이 높은 맥락에서는 지식귀속을 않는 은행 사례와 같은 경우들은 기존의 전통적 불변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입장이 인식론적 맥락주의이다. 인식론적 맥락주의는 동일한 지식귀속 문장이 발화되는 맥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인식론적) 맥락주의에 따르면 인식적 상황이 변하지 않고서도 실천적 중요성의 차이와 같은 맥락의 변화에 의해서 지식귀속 문장의 진리치는 바뀔 수 있게 된다. 이런 입장은 전통적 불변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는 인식론적 문제를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전반부(1장, 2장)에서는 전통적 불변주의와 인식론적 맥락주의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1장에서는 인식론적 맥락주의를 촉발시킨 계기가 된 지식의 폐쇄성을 이용한 회의주의 논변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이런 회의주의 논변을 극복하는 인식론적 맥락주의를 검토하고 이 입장이 가지는 핵심적 특성을 드러내어 의미론적으로 정식화한다.

본 논문의 핵심적인 후반부(3장)에서는 전통적 불변주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발화 맥락의 변화에 따라 지식귀속의 진리치가 변화하는 사례들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설명방식에는 맥락에 따라서 동일한 지식귀속의 진리치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직관이 의미론적인 것이 아닌 화용론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WAM을 이용한 방식과 이를 지식의 반투명성과 심리적 편향에 의존해서 설명하는 티모시 윌리엄슨과 제시카 브라운의 방식이 있다. 본 논문은 WAM을 이용한 불변주의는 합당하게 WAM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며, 윌리엄슨과 브라운의 방식을 이용한 전통적 불변주의는 실수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 그 이론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논변을 통해 보일 것이다. 만약 이런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면 전통적 불변주의는 맥락의 변화에 따른 지식귀속의 진리치 변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인식론적 맥락주의, 전통적 불변주의, 언어철학, 인식론, WAM, 제시카 브라운, 티모시 윌리엄슨, 회의적 논변
학 번 : 2009-20060

<목 차>

들어가며 ····· 1

1. 지식의 폐쇄성을 이용한 회의주의 논변 ····· 3

2. 인식론적 맥락주의 ····· 5
 2. 1. 은행사례(Bank case) ····· 5
 2. 2. 광범위한 맥락민감성과 숨겨진 논항 이론(implicit argument theory) ·· 7
 2. 3. 지표사적 맥락주의의 정식화 ····· 10
 2. 4. 회의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맥락주의의 답변 ····· 13
 2. 5. 보론 : 인식론적 맥락주의의 의미 - 인식론의 새로운 언어학적 전회(linguistic turn) ····· 14

3. 맥락주의적 사례에 대한 전통적 불변주의의 대응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16
 3.1. 전통적 불변주의의 보증된 단언가능성 책략(WAM : Warranted Assertibility Maneuver)과 그에 대한 비판 ····· 18
  3.1.1 WAM이 합당하게 적용되기 위한 드로즈의 세 가지 조건 ····· 19
  3.1.2. WAM을 통한 불변주의적 입장에 대한 드로즈의 비판 ····· 20
  3.1.3. 드로즈의 비판에 대한 제시카 브라운의 재비판 및 이에 대한 문제 제기 ·· ·····21
  3.1.4. WAM을 통한 전통적 불변주의에 대한 소결 ····· 35
 3.2 윌리엄슨식의 전통적 불변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 35
  3.2.1 윌리엄슨의 지식에 대한 반투명성 논제에 의한 불변주의 ····· 35
  3.2.2 윌리엄슨의 반투명성 논제에 의존한 설명이 가지는 문제점 ····· 38
  3.2.3. 심리적 편향(psychological bias)에 의한 설명 ····· 43
  3.2.4 심리적 편향 설명의 문제점 ····· 45

결론 ····· 48

참고문헌 ····· 50

들어가며

전통적으로 “한나는 신림동 국민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와 같은 지식귀속문장의 발화가 가지는 진리치는 발화의 주체인 한나가 놓여있는 인식적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한 맥락에 상관없이 불변한다고 생각되어 왔다. 이런 입장이 전통적 불변주의이다. 하지만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할 지식의 폐쇄성을 이용한 회의주의 논변과, 인식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지식귀속문장의 진리치가 맥락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은 기존의 전통적 불변주의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불변주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중에서 전통적 불변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새롭게 등장한 인식론적 맥락주의는 지식귀속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발화되는가에 따라서 발화가 표현하는 내용이 바뀌고, 이 결과로 발화가 가지는 진리치가 변한다는 의미론적 주장을 펼친다. 이렇게 전통적 불변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인식론적 맥락주의에 대해 전통적 불변주의는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전통적인 불변주의의 대응은 크게 (1) 맥락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직관이 의미론적인 것이 아니라 화용론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WAM**(Warranted Assertability Maneuver)와 (2) 그 직관을 가지는 사람이 처해있는 인식적 조건(2차적 지식의 결여)이나 심리적 편향에 의한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면 인식론적 맥락주의자들이 말하는 맥락주의적 사례들은 전통적 맥락주의에게 실제로는 위협이 되지 않으며, 동일한 지식귀속 문장의 발화가 가지는 진리치는 인식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맥락의 변화에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한 것이 된다.

최근에 활발했던 인식론적 맥락주의와 그와 경쟁하는 입장[1]들 사이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전통적 불변주의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인상을 준다. 특히 최근에 벌어지는 논쟁에 대한 전통적 불변주의의 대응에 해당하는 (1)과 (2)에 대해서 논박을 시도하는 작업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 불변주의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는 이상, 인식론적 맥락주의와 관련된 논의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1)과 (2)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인식론적 맥락주의와 관련된 논의의 기반을 충실히 하는

1) 이런 입장에는 전통적 불변주의 외에도, 지식귀속의 진리치가 지식귀속문장의 주체가 가진 실천적 관심(pratical interest)과 같은 것에 민감하다고 주장하는 스탠리와 호손의 주체-민감적 불변주의(subject-sensitive invariantism)과 지식귀속의 진리치가 발화자의 맥락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발화의 진리치를 판정하는 판정자의 맥락에 의해서 바뀐다고 주장하는 맥팔레인 등의 상대주의가 있다. 그리고 발화자의 맥락에 의해서 지식귀속문장 발화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리치만 바뀐다고 말하는 비지표적 맥락주의 역시 가능한 입장이다. 주체-민감적 불변주의에 대해서는 Stanley(2005)와 Hawthorne(2004) 참고. 맥팔레인의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MacFarlane(2005) 참고. 비지표적 맥락주의에 대해서는 MacFarlane(2009) 참고.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의 전반부는 배경 이해를 위해서 인식론적 맥락주의가 어떻게 촉발되었으며, 인식론적 맥락주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를 소개하고 설명할 것이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인식론적 맥락주의의 공격에 대응하여 전통적 불변주의를 옹호하는 2가지 방식인 (1)과 (2)가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변할 것이다. 이런 논변이 설득력이 있다면 전통적 불변주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옹호하거나, 전통적 불변주의를 지식귀속문장의 진리치가 인식적인 것과 무관한 요소(귀속자의 맥락, 주체의 실천적 관심, 판단자의 맥락 등)에 의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논문은 비록 인식론적 맥락주의와의 비교를 통해서 전통적 불변주의의 문제를 드러내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전통적 불변주의에 대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인식론적 맥락주의를 명시적으로 옹호하지는 않는다.

1. 지식의 폐쇄성을 이용한 회의주의 논변

지식에 대한 맥락주의가 제기된 원래의 동기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일상적인 지식을 부정하는 설득력 있는 회의주의적 논변에 답변하기 위해서이다. O를 <나는 손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명제로 놓고, H를 퍼트넘의 통 속의 뇌 가설과 같이 적절하게 선택된 회의적 가설에 해당하는 명제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지식에 대한 회의적 논변을 만들 수 있다.[2)]

일상적인 지식에 대한 회의주의 논변

전제1. 나는 H가 아니라는 것(~H)을 모른다. (예 : 나는 내가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
전제2. 만약 내가 ~H를 모른다면, 나는 O라는 것을 모른다. (예 : 만약 내가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면, 나는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C. 나는 O라는 것을 모른다. (전제 1과 전제 2로부터)

전제1은 회의적 가설에 따라 직관적으로 참이다. 내가 실제로는 통 속의 뇌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극에 의해서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처럼 감각적인 입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내가 가진 인식적 한계로 인해서 나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타당하다.

전제2는 O가 ~H를 함축하고, 그러므로 연역적 함축 하에서의 폐쇄성(Principle of Closure of Knowledge under Deductive Entailment)의 원칙[3)]에 따라 O를 아는 것이 ~H를 아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만약에 O를 안다면, ~H임을 안다>의 대우인 <만약에 ~H임을 모른다면, O임을 모른다>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게 된다. 만약에 전제2를 부정하려면, O가 ~H를 함축한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직관적인 폐쇄성의 원리를 부정해야 한다. 하지만 O가 ~H를 함축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폐쇄성의 원리를 부정하여 위와 같은 회의론적 논변을 공격하려는 시도[4)]들은 있었으나,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폐쇄성 원리를 부정하는

2) DeRose(1995)에서 구성한 회의적 논변을 참고하였다.
3) 직관적으로 A가 B를 함축한다면, A를 알면 B를 안다는 것이 연역적 함축 하에서의 폐쇄성의 원리, 줄여서 폐쇄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수학적인 명제와 같이 A가 B를 함축하고, A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B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에는 위의 폐쇄성의 원리를 좀 더 약하게 만들어, A가 B를 함축한다는 것을 알고, A를 알면, B도 알게 된다고 식의 폐쇄성의 원리로 수정할 경우, 이전보다 더 강한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수정된 폐쇄성의 원리를 알려진 연역적 함축 하에서의 폐쇄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김기현(1998) 7장 pp. 245~246 참고. 이렇게 폐쇄성의 원리를 수정할 경우에 논변에 A가 B를 함축한다는 것을 지식의 주체가 알고 있다는 것만 추가적인 전제로 삼으면 되므로, 전체적인 논변의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

받아들인 전제1과 전제2로부터 전건긍정(modus ponens)에 의해 결론 O가 따라 나온다. 하지만 결론인 내가 O를 모른다는 것, 즉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와 같은 결론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다. O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외부세계에 대한 감각적 경험 일반에 대한 명제가 들어갈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가진 거의 대부분의 경험적 지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의 전제를 받아들이고 논변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따라 나오는 결론을 수용하는 것은, 경험적 지식 일반을 부정하는 회의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험적 지식을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다. 그러므로 이런 회의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인식론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관점에서 <나는 O를 안다>[5]는 명제와 <나는 ~H를 모른다>는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의 회의주의 논변은 <나는 ~H를 모른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분명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는 O를 안다>는 명제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어와 같은 독단주의자(Dogmatist)들은 <나는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와 같은 명제의 참이 너무나 분명하므로, 이를 통해서 <나는 ~H를 모른다>는 명제가 거짓임을 주장한다.[6] 회의주의자들이 위에서 전제2의 전건을 긍정하여 결론을 이끌어내었다면, 독단주의자들은 전제2 자체는 받아들여 폐쇄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적 지식의 확실성을 근거로 전제2의 후건을 부정하는 식으로 전건의 거짓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이러한 독단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O를 안다>는 명제가 <나는 ~H를 모른다>는 명제보다 더 확실하다고 받아들일만한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독단론자가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회의주의 논변에서 전제1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회의론자들 역시 <나는 ~H를 모른다>와 같은 <나는 O를 안다>보다 더 확실한 참이라고 받아들일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어려웠기에 회의론과 독단론 사이의 논의는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에서와 같은 회의론과 독단론 사이에서 양자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입장이 인식론적 맥락주의이다. 지식의 폐쇄성에 의한 회의주의적 논변에 인식론적 맥락주의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론적 맥락주의가 어떤 입장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4) 노직Nozick이나 드레츠키Dretske는 폐쇄성의 원리를 부정함으로써 회의론을 극복하려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Dretske(1970), Nozick(1981) 참고.

5) <나는 O를 안다>와 같은 것은 지표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진리치를 결정할 수 있는 명제라고 부를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나"와 같은 표현이 주체에 대한 고정지시어를 대체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6) Moore(1962), pp. 144-148 참고.

2. 인식론적 맥락주의

인식론적 맥락주의는 코헨Cohen[7], 드로즈DeRose[8], 루이스Lewis[9] 등에 의해서 제기되기 시작한 입장으로 세부적인 과정은 각각 다르지만, 대체로 지식귀속의 진리치가 지식귀속을 하는 귀속자(attributor)의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들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용하는 예가 소위 **은행사례**라고 불리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10]

2. 1. 은행사례(Bank case)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은행사례 A(낮은 중요성의 경우)

한나의 아내와 한나는 금요일 오후에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계좌에 돈을 예치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금요일 오후에 그랬던 것처럼, 은행의 줄이 매우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다. 비록 그들은 가능한 빨리 돈을 예치시키고 싶기는 했으나, 지금 당장 돈을 예치시키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한나는 곧바로 집으로 가서 내일인 토요일 아침에 돈을 예치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아내는 “아마도 내일은 은행이 열지 않을 거야. 많은 은행들이 토요일에는 문을 닫아.”고 말했다. 그러자 한나는 “아니. 나는 내일 은행이 열거라는 것을 알아. 내가 2주 전 토요일에 저 은행에 갔었거든. 그 때 정오까지 열려 있었어.”라고 대답했다.

은행사례 B(높은 중요성의 경우)

한나의 아내와 한나는 금요일 오후에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계좌에 돈을 예치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에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금요일 오후에 그랬던 것처럼, 은행의 줄이 매우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은 매우 은행에 예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우였다. 만약에 월요일 아침 전까지 계좌에 돈을 입금해놓지

---

7) Cohen(1988) 참고.
8) DeRose(1992) 참고.
9) Lewis(1996) 참고.
10) 이 사례는 DeRose(1992), 913p에 나오는 사례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되 내용과 큰 관련이 없는 약간의 수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회의주의자들이 사례로 드는 통 속의 뇌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들과 달리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는 것에 주목하자. 이와 유사하면서 인식론적 맥락주의와 관련된 논의에서 많이 거론되는 사례로는 공항 사례, 동물원의 얼룩말 사례(Stanley 2005: 63p) 등이 있다.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은 매우 나쁜 상황에 빠질 수 있었다. 그리고 물론 일요일에 은행은 열지 않는다. 한나의 아내는 한나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녀는 "은행이 여는 요일은 바뀔 수도 있어. 당신은 은행이 내일 연다는 것을 알아?"라고 말했다. 한나는 은행이 열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아니야. 은행 안에 들어가서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어(즉, 아직 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몰라)"

두 경우에 한나의 반응은 타당해 보인다.[11] 그리고 한나의 반응이 타당해 보인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면(한나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동일하다면), 사람들은 은행사례A의 경우에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은행사례B의 경우에는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모른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사람들은 은행사례A에서 한나가 "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는 발화를 참이라고 간주할 것이고, 은행사례B에서 한나의 "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는 발화는 거짓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위의 경우와 아래의 경우에 증거와 같은 지식귀속과 관련된 주체의 인식적 상황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주체의 인식적 상황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도 맥락이나 외부 상황에 따라 하나의 지식귀속 문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진리치를 부여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식적 상황이 동일하다면 지식귀속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지식귀속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직관이다.

인식론적 맥락주의는 이러한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직관이 바로 지식귀속 문장의 참, 거짓에 대한 직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식론적 맥락주의

11) 이러한 직관에 모든 이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May, Sinnnott-Armstrong 등(2010)에 따르면, 맥락주의나 관심민감적 불변주의가 직관적으로 타당하고 상정하는 예들을 일반인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은 맥락주의나 관심민감적 불변주의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맥락주의는 은행사례A와 은행사례B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A의 경우에는 지식을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B의 경우에는 지식을 귀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경우를 비롯한 여러 경우들을 조사한 결과 지식귀속에 있어서 맥락주의자들이 예상하는 것과 같은 유의미한 차이값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주의적 사례의 직관적 타당성은 다수의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철학자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지식귀속에 대한 직관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확실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 이것은 또한 실험철학이 가지는 가치와 지위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된다. 그리고 과연 실험조건이 맥락주의나 관심민감적 불변주의에 공정하게 설계되었는지도 고려해야할 문제이다. 실제로 Sprida and Stanley(forthcoming)에서는 이런 실험들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은행사례에서 맥락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직관이 나타나는 실험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철학적 작업에서는 이러한 지식귀속의 사례들에 대한 철학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직관이 우선시 된다는 관점을 취할 것이다. 따라서 맥락주의 및 관심민감적 불변주의 등이 말하는 사례의 직관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자의 입장에서 은행사례는 인식적 상황과 관련된 아무런 변화 없이도 동일한 지식귀속 문장이 맥락에 따라서 진리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론적 맥락주의는 맥락에 따라서 지식귀속문장의 진리치가 바뀌는 현상이 지식귀속 문장에서 사용되는 "알다(know)"와 같은 표현이 맥락민감적(context-sensitive)인 표현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알다"와 같은 표현이 맥락민감적인 표현, 다시 말해서 맥락에 따라 동일한 문장의 진리치를 바꾸는 표현이란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자연 언어에서 같은 문장의 진리치가 맥락에 따라 바뀌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화하는 사례이다 : "나는 오늘 아침을 굶었다." 이러한 발화는 발화된 문장에서 지칭하는 "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이 지칭하는 날짜가 며칠인지에 따라서 어떤 맥락에서는 참이 되고 어떤 맥락에서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면서 그 문장의 진리치를 바꿀 수 있는 단어를 지표사(indexical)라고 부른다. 많은 맥락주의자들은 지표사가 맥락에 따라 의미가 바뀌듯이 "알다(know)"와 같은 단어도 맥락에 따라 그 의미(내용)이 변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식귀속 문장의 진리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다(know)"의 내용이 맥락에 따라서 변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흔히 "알다"에 대한 지표사적 맥락주의(indexical contextualism)이라고 한다.[12)]

하지만 분명히 "알다(know)"는 일반적으로 맥락에 따라서 내용이 변하는 지표사로 알려져 있는 "나(I)", "지금(now)", "이것(This)"와 달리, 일반적으로 지표사로 분류되지 않는 단어이다. 그럼에도 "알다(know)"와 같은 지식귀속과 관련된 단어가 지표사와 같이 맥락민감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표사가 아닌 "알다(know)"와 같은 단어가 어떻게 맥락에 따라서 내용이 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맥락주의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의미론적 입장이, 지표사가 아닌 많은 단어들이 맥락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 숨겨진 논항 이론이다(implicit argument theory).

2. 2. 광범위한 맥락민감성과 숨겨진 논항 이론(implicit argument theory)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지표사만이 맥락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표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단어들이 문장에서 쓰일 때에도 맥락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하는 현상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

12) 이러한 인식론적 맥락주의 내에서 이런 식의 용어법이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며, 특히 맥팔레인 이후 상대주의 논의가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구도는 더 복잡해졌다. MacFarlane(2005) 참고. 본 논문은, 위에서 말한 맥락주의 입장이 "알다(know)"를 지표사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단어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표사적 맥락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맥팔레인의 견해에 따르고 있다.

다.

- 모든 사람들이 학회에 참여했다.
- 박지성은 키가 크다.
- 철수는 피아노를 좋아한다.

첫 번째 문장인 “모든 사람들이 학회에 참회했다”는 어떤 맥락에서 발화가 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어떤 맥락에서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회에 참여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회에 참여했다>와 같은 의미를 지니거나, 혹은 <오기로 약속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회에 참여했다>와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각 문장의 발화가 참인지 거짓인지 역시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의 발화도 박지성이 일반인들과 비교되었을 때는 참일 수 있지만, EPL(England Premier League)이라는 축구 리그 안에서 비교하고 있는 맥락이라면 거짓일 수 있다.[13] 이것은 문장의 의미인 명제가 결정되면, 그 참, 거짓은 가능세계 상대적으로만 변한다고 간주하는 전통적인 명제에 대한 입장에서 볼 때, “박지성은 키가 크다”는 문장의 내용인 명제 자체가 변화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장인 “철수는 피아노를 좋아한다” 역시 <철수는 피아노의 소리를 좋아한다>, <철수는 피아노의 모양을 좋아한다>, <철수는 피아노의 크기를 좋아한다>와 같은 명백히 서로 다른 진리조건을 가지는 명제, 즉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는 명제를 맥락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세 문장들은 맥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다. 하지만 이 문장들에는 전통적으로 지표사로 분류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표사들만이 맥락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맥락민감성을 가진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의미론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른다.

이렇게 전형적인 맥락민감적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발화하는 맥락에 따라서 한 문장이 표현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르카나티 등이 주장하는 급진적 맥락주의(Radical Contextualism)[14]와 카펠렌, 르포어 등이 주장하는 의미

13) 참고로 박지성의 키는 공식 프로필 상 177cm로 대한민국 남성 평균보다 크다. 하지만 180cm가 넘는 EPL 축구선수들의 평균신장과 비교하면 큰 키는 아니다.

14) 급진적 맥락주의가 본 논문에서 말하는 맥락주의, 즉 인식론적 맥락주의와는 맥락민감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단어의 외연이 다르며,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자. 인식론적 맥락주의는 “알다(know)”와 같은 단어가 맥락 민감적이라는 제한적인 주장을 하며, 인식론적 맥락주의가 명제의 내용이 발화된 맥락 속에서 문장 사용의 방식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르카나티 식의 맥락주의에 동의할 필요도 없다. 르카나티 식의 맥락주의에 대해서는 Recanati(2004) 참고. 본 논문에서는 인식론적 맥락주의와의 구분을 위해서 르카나티 식의 맥락주의를 급진적 맥락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최소주의(Semantic Minimalism)[15], 그리고 스탠리 등이 주장하는 숨겨진 논항 이론이다.[16]

르카나티 식의 급진적 맥락주의는 문장의 발화로부터 표현되는 요소 중에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하는 최소 명제가 순수하게 의미론적인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화용론적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맥락적인 개입에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서 급진적 맥락주의 관점에서 "철수는 피아노를 좋아한다"는 문장의 발화를 맥락에 의해서 <철수는 피아노의 겉모습을 좋아한다>라는 최소명제를 구성하여 이해할 때, 최소명제의 구성은 문장 속에 주어진 순수한 의미론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맥락적 요소에의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의(top-down)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 급진적 맥락주의는 어떤 단어가 맥락민감성을 가지는 것이 구문론적(syntactically)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맥락민감성을 지닐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 거의 모든 문장들은 발화하는 맥락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할 수 있다.

반면 의미 최소주의는 지표사와 동음이의어 같은 몇몇의 소수의 전형적인 맥락민감적 단어를 제외하고는 맥락이 개입하지 않고 최소명제가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박지성은 키가 크다"는 문장은 맥락에 관계없이 의미론적으로 <박지성은 키가 크다>와 같은 최소명제를 표현한다. 이러한 최소명제는 모든 맥락에서 참이며,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박지성은 맨유 선수 중에서 키가 크다>거나 <박지성은 한국인 중에서 키가 크다>와 같은 명제는 의미론적인 명제가 아니라 화용론적인 명제에 해당한다.[17]

마지막으로 숨겨진 논항 이론은 앞에서 말한 지표사가 아닌 단어들을 포함한 문장들이 보여주는 맥락민감성은 맥락적 요소를 받을 수 있는 숨겨진 논항 자리를 구문론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숨겨진 논항을 통해서 설명되지 않는 맥락민감성은 의미론적인 방식이 아니라 화용론적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한 "박지성은 키가 크다"는 <박지성은 (x에 비해서) 키가 크다>와 같은 방식으로 "(x에 대해서)"와 같은 맥락적 요소를 받을 수 있는 숨겨진 논항자리를 구문론적으로 가지고 있으며[18], 맥락에 따라 'x'자리에 일반인이 들어가면 참이 될 수 있지만, 농구 선수가 들어가면 거짓이 된다.

---

15) Cappelen and Lepore(2005) 참고.
16) Stanley(2005), 특히 pp. 30~68 참고.
17) 카펠렌과 르포어는 이를 언화행위 내용(speech act content)라고 부른다. Cappelen and Lepore(2005), pp. 190~207 참고.
18) 이 경우에 숨겨진 논항자리를 구문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는 "크다"와 같은 형용사가 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지표사적 맥락주의가 큰 이론적 부담 없이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숨겨진 논항 이론이다. 숨겨진 논항 이론의 관점을 따를 때, 인식론적 맥락주의자들은 “알다(know)”가 구문론적으로 맥락적 요소를 받는 숨겨진 논항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맥락에 따라 같은 지식귀속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가 달라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지표사적 맥락주의가 숨겨진 논항 이론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르카나티 식의 맥락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알다(know)”가 맥락민감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자연언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맥락민감적인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왜 “알다(know)”가 맥락민감적인 단어인지에 대해서 보다 일반적인 설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인식론적 맥락주의가 아니라 급진적 맥락주의 자체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 급진적 맥락주의가 거의 모든 표현들이 맥락민감성을 지닌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론과 단절적인 입장으로 간주되는 만큼, 급진적 맥락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거의 모든 단어들이 맥락민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하는 추가적인 논증의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에 기존의 지표사들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드러나 있지 않은 숨겨진 구문론적 요소인 논항을 몇몇 표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락이 표현의 내용을 변화시킨다는 식으로, 맥락이 진리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숨겨진 지표 이론은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론과 연속성을 지닌 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식론과 관련해서 지표사적 맥락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숨겨진 논항 이론을 받아들여서, 대체로 “알다(know)”와 같은 인식론적 용어가 자연 언어에서 숨겨진 논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귀속 문장이 맥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을 표현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표사적 맥락주의가 선택할 수 있는 온건한 입장이 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숨겨진 논항에 의한 것을 지표사적 맥락주의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정식화를 시도할 것이다.

2. 3. 지표사적 맥락주의의 정식화

그러면 지표사적 맥락주의를 정식화 시켜보자.[19] 첫 번째 지표사적 맥락주의의 특성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맥락에서 같은 지식귀속 문장이 서로 다른 진리치를 가질수 있고, 이것이 마치 전형적인 지표사들을 포함한 문장처럼 지식귀속 문장이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지식귀속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알다(know)”와 같은 동사와 연결된 숨겨진 논항이 주어진 맥락에 의해 채워지는 것을 통해 이뤄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맥락적 요소로 들어가는 것은 지식귀속의 맥락에서 유관한 기준,

19) 이러한 정식화는 Ludlow(2005), 특히 pp. 14~15, 그리고 pp. 26~27을 참고하고 있다.

즉 인식적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은행사례 A는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이 거의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증거의 양이나 질이 높지 않고, 따라서 낮은 인식적 기준이 맥락적 요소로 주어진다. 반면에 은행사례 B는 돈을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항이었으므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식적 기준이 매우 높은 상황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식귀속 문장과 관련된 인식적 기준을 결정하는 맥락이 어떤 맥락인가에 대한 것이다. 지식귀속 문장과 연관된 맥락은 크게 문장의 주체가 속해있는 맥락과 발화의 귀속자(attributor)가 속해있는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사례와 같이 지식귀속의 주체와 귀속자가 동일한 경우는 주체의 맥락과 귀속자의 맥락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지식귀속의 주체와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두 사람이 속해있는 맥락 역시 유의미하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은행사례 B에 대해서 제 3자인 영희가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안다”는 발화를 한다면, 여기서 주체의 맥락은 한나가 속해있는 맥락이고, 귀속자의 맥락은 영희가 속해있는 맥락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화 상황에서 한나에게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영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녀의 입장에서 주체가 은행이 문을 연다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이 만족시켜야하는 인식적인 기준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반면에 영희에게는 은행이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의 여부가 거의 중요하지 않아서 은행이 문을 연다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만족시켜야 할 인식적 기준이 낮은 상황일 수 있다. 따라서 영희가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안다”는 발화를 했을 때, 이러한 지식귀속 문장의 주체와 발화의 귀속자가 처해있는 맥락은 구분이 되고, 그에 따라서 동일한 주체에게 지식을 귀속하기 위해서 주체가 만족시켜야 하는 인식적 기준도 주체가 속해있는 맥락과 귀속자가 속해있는 맥락에 의해서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식의 주체가 속해있는 맥락과 귀속자의 맥락이 구분될 때, 어느 맥락에 따라서 지식귀속 문장의 내용이 결정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지표사적 맥락주의는 일반적인 지표사가 귀속자에 의해서 내용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속자의 맥락에 의해서 지식귀속의 내용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지표사가 쓰인 문장 “그는 오늘 여기로 올 것이다”의 발화 내용이 주체가 속해있는 맥락이 아니라, 이 발화를 하는 귀속자가 속해있는 맥락에 의해서 “오늘”이나 “여기”가 표현하는 내용이 결정되는 것처럼, 맥락주의자들은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안다”라는 지식귀속 문장 역시 이 문장을 발화하는 사람인 귀속자가 속해있는 맥락에 의해서 그 내용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표사적 맥락주의의 입장에서는 은행사례 B와 같은 경우에 비록 주체인 한나가 지식귀속에 필요한 인식적 기

준이 높은 맥락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귀속자가 지식귀속의 기준이 낮은 맥락에 속해 있다면, 귀속자가 발화한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안다”는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낮은 인식적 기준에 따라서 안다>와 같은 명제를 표현하며, 이것은 참이다. 물론 귀속자의 맥락은 반드시 귀속자의 의도에 의해서 결정될 필요는 없으며, 귀속자가 처해있는 객관적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맥락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2012년 2월 19일에 “오늘은 날씨가 춥다”라는 발화를 했을 때, 발화자가 그 날을 2월 20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발화자가 표현하고 있는 명제는 <2012년 2월 19일의 날씨가 춥다>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식귀속을 위해서 만족시켜야 하는 인식적 기준이 높고 낮음이 반드시 단선적(linear)으로 결정될 필요는 없다. 즉,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식적 기준이 있을 때, 마치 하나의 수직선 위에 어느 한 위치를 차지하듯이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어떤 측면에서 보든지 높거나 낮은 식의 인식적 기준이라고 생각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지식을 위한 기준과 법적으로 지식이 되기 위한 기준이 반드시 어느 한 기준이 높은 기준이라는 식으로 생각될 필요가 없으며, 어떤 측면에서 비교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적 기준을 요구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상으로 나온 지표사적 맥락주의의 특징들을 정리하여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지표사적 맥락주의** : 하나의 지식귀속 문장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그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식이 되기 위한 인식적 기준이 “알다(know)”와 같은 단어가 구문론적으로 숨겨진 논항 자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식귀속 문장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적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는 맥락은 지식귀속 문장을 귀속하는 귀속자의 맥락이다. 여기서의 인식적 기준은 단선적인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지표사적 맥락주의에서는 “알다(know)”는 사용의 맥락에 따라서 서로 다른 관계를 표현한다. 이를 카플란 식의 의미론으로 나타내면 “알다(know)”는 맥락이 정해져야 특정한 내용(content)을 가지게 되는 함수를 특성(character)으로 가지고 있는 술어이다. 맥락에 따라서 표현되는 관계는 대략적으로 주체 S가 명제p와 시간 t에 대해서 맥락 c에서 가지게 되는 인식적 기준에 의해서 맺고 있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평가상황에서 외연으로의 함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높은 인식적 기준이 적용되는 맥락에서 “S는 p를 시점 t에 알고 있다”와 같은 지식귀속 문장을 발화하면, 이는 <S는 p를 t시점에 높은 인식적 기준에 의해서 안다>와 같은 명제를 표현하며, 여기서 “안다”는 주체 S가 명제 p와 t 시점에 높은 기준에 의해서 맺고 있는 관계

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상황의 요소에 세계만이 들어간다고 간주했을 때, 이러한 관계는 S가 명제 p를 시점 t에 높은 인식적 기준을 만족시킬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러한 세계 w_1이 평가상황으로 투입되었을 때는, <S, p, t, 높은 인식적 기준>이 대상으로 투입되었을 때 참을 산출하는 함수[20]를 산출하고, 높은 인식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세계 w_2가 평가상황이 되었을 때는 <S, p, t, 높은 인식적 기준>이 투입되어도 거짓을 산출하는 함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2. 4. 회의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맥락주의의 답변

지금까지 살펴본 인식론적 맥락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입장이 어떻게 앞에서 살펴본 회의주의적 논변에 답변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앞에서 살펴봤듯이 회의주의적 논변은 <나는 ~H를 모른다>라는 당연히 참이라고 생각되는 명제에서, 폐쇄성을 통해서 <나는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와 같은 매우 반직관적인 명제를 이끌어낸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인식론적 맥락주의는 두 직관을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직관의 충돌을 해결한다. 일상적인 맥락에서 “나는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와 같은 발화는 참이다. 그것은 이 맥락에서는 발화자인 내가 통 속의 뇌인 것과 같은 극단적인 가능성까지 배제해야 할 정도로 강한 인식적 기준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21]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와 같은 발화는 <나는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낮은 인식적 기준에 의해 안다>와 같은 명제를 표현하며, 이러한 명제는 참이다. 반면에 내가 통 속의 뇌일 가능성이 진지하게 고려되는 맥락일 경우에, 내가 통 속의 뇌인 가능성조차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제해야할 유관한 가능성이 된다. 이러한 회의적 맥락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강한 인식적 지위가 요구되지만, 주체는 이러한 인식적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나는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와 같은 발화는 <나는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높은 인식적 기준에 의해

---

20) 술어의 내용에 해당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f:평가상황→<f*:대상→진리치>. 다시 말해서 평가상황을 투입값으로 받으면 대상에서 진리치로의 함수를 산출값으로 내는 함수이다. 따라서 지표사적 맥락주의에서 “알다”와 같은 술어는 평가상황에 해당하는 세계를 투입값으로 받으면, <S, p, t, 인식적 기준>와 같은 순서쌍을 투입값으로 받고 진리치를 산출하는 함수를 산출한다.

21) “나는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와 같은 발화가 일상적인 맥락에서 참이라면, 폐쇄성의 원리에 따라 “나는 내가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도 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의주의자들은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도 참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경험적 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론을 일반적으로 옹호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관하지 않은 가능성이었던 통 속의 뇌와 같은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면 그것이 유관한 가능성으로 변화하면서 맥락에 따른 인식적 기준을 올린다는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 주목의 규칙(Rule of Attention)을 통해서 루이스는 이런 방식의 답변을 시도한다. Lewis(1996), 특히 pp. 559~560 참고.

안다>와 같은 명제를 표현하며, 이러한 명제는 거짓이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맥락에서 “나는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가 참이라는 직관과 회의적인 맥락에서 “나는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가 거짓이라는 직관은 서로 다른 명제에 대한 직관이고, 따라서 이 두 명제의 진리치가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맥락주의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착각한 것은 “알다”와 같은 용어가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의론과 일상적인 직관의 충돌을 인식론적 맥락주의는 충돌하는 두 직관을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5. 보론: 인식론적 맥락주의의 의미 - 인식론의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

인식론적 맥락주의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인식론적 맥락주의는 단순히 회의주의나 은행사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식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란 인식론적 맥락주의가 회의주의 논변과 같은 인식론적인 문제를 “알다”에 대한 의미론과 지식귀속 문장의 진리조건 같은 언어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언어적 접근을 통해서 인식론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하기 전에, 먼저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보자. 앞에서 말한 은행 사례나 회의주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맥락주의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직관을 공유한다는 것이, 지식귀속 문장의 발화에 대한 참, 거짓을 판단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은행사례 B와 같은 경우에 철학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이 경우에 한나에게 지식을 귀속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직관을 가진다는 것이, 지식귀속에 대한 전문적 철학적 논의 속에서 지식귀속의 진리치가 맥락에 따라서 변한다고 말하는 맥락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른 학문들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들의 경우를 비교해보자. 현대에 전문화된 각각의 학문들은 학문들의 체계 내에서 사용되는 고유한 전문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어는 일상인들의 직관과는 무관하게 철저히 그 학문 체계 내에서의 정의와 사용에 의해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힘”은 일상어에서의 “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나 가지는 의미와는 큰 상관없이 물리학 내에서의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F=ma’와 같은). 따라서 물리학에서 “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힘”이라는 단어가 일상인들에게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와 무관하다. 이와 같은 생각의 연장선에서 인식론에서 다루는 지식귀속과 관련된 “알다”와 용어가 인식론의 전문어라면 이 전문어의 의미 역시 지식귀속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론 내부의 정의에 의해서 다뤄져야 할 것이지, 일상인들이 실제로 지식귀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가는 이러한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맥락주의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식 자체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다(know)"와 같이 지식귀속을 위해서 쓰이는 인식론적 용어들이 일상인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의미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언어철학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피해간다. "알다(know)"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일상적인 직관이, 적어도 일상 언어에서의 "알다(know)"에 대한 의미론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자료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맥락주의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알다(know)"에 대한 의미론적 주장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식 자체의 본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주장을 할 때 져야할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예들에 대해서 공유되는 직관을 맥락주의를 뒷받침하는 유효한 자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식론의 언어적인 전회(linguistic turn)[22]가 언어철학적인 작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인식론적 맥락주의자들을 비롯하여, "알다(know)"의 의미론적 속성에 대해서 논의에 참가하는 철학자들은 "알다(know)"의 의미론적 속성을 밝히는 것이 지식의 본성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23]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알다(know)"라는 단어의 의미론적 속성에 대한 논쟁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작업이 결국에 지식을 다루는 인식론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식론이 전문화된 학문 분야이지만, 많은 인식론자들이 자신들의 탐구 대상으로 삼는 지식이라는 대상이, 일상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지식"이나 "알다(know)"와 같은 일상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탐구의 대상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라면, 일상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귀속의 방식들은 인식론에서 탐구하는 지식의 본성과 대체로 일관적인 성격을 지닐 것이다.

러들로우는 이러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낸다.[24] 그는 우선 지식의 본성에 대한 탐구가 "알다(know)"의 의미론에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들어맞아

---

22) 이 용어는 인식론에서의 새로운 언어적 전회(New Linguistic Turn)라는 용어는 Ludlow(2005)에서 쓰인 것을 옮겨온 것이다. 이것은 인식론에서 지식의 본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회의주의에 대한 논의가 인식론적 맥락주의가 등장하면서 "알다(know)"가 어떻게 일상적으로 자연언어에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언어철학적 논의로 모아지고 있는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용어이다.

23) 다만 스탠리의 관심 민감적 불변주의는 자신의 주장이 단지 '알다(know)'에 대한 의미론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형이상학적 주장이라는 것을 밝힌다. Stanley(2005), 5장 및 116p 참고.

24) Ludlow(2005), 13p 참고.

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인식론에서의 지식 분석이 “알다(know)”의 의미론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분석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인식론에서 다루는 지식의 본성이 일상적인 언어적 지식귀속 행위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러들러우가 생각하기에 “알다(know)”에 대한 의미론에 대한 탐구는 지식에 대한 분석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반영하며, 더 나아가 그는 “알다(know)”에 대한 의미론을 지식에 대한 일종의 자연화된 개념 분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앞에서 말한 일상언어의 지식귀속에서 나타나는 대상으로서의 지식이 인식론에서 다루는 대상으로서의 지식과 거의 동일한 대상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식론에서 다루는 대상으로서의 지식과 일상적인 지식을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일상적인 언어활동에서 지식을 귀속시킬 때 일반적으로 주체가 만족시키는 조건들에서 지식의 본성을 구성하는 특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맥락주의는 그러한 조건들이 귀속자의 맥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 방식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에 대한 이론적인 정당화를 바탕으로 보여주려는 견해가 된다. 그러므로 맥락주의는 단순히 “알다(know)”의 의미론에 대한 언어철학적 입장일 뿐만 아니라 지식의 본성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맥락주의적 사례에 대한 전통적 불변주의의 대응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지식귀속에 대한 전통적 불변주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여준 맥락주의적 사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직관을 전통적 불변주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식적인 상황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한나에게 지식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직관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지표사적 맥락주의와 같은 입장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지식귀속과 관련된 중요성과 같은 맥락적 요소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식적 기준을 바꾸고, 변화된 인식적 기준이 지식귀속 문장의 진리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설명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은행사례는 지식귀속의 진리차가 맥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 같다.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동일한 지식귀속 문장에 대한 발화의 진리치가 바뀐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전통적인 불변주의는 은행사례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같은 지식귀속 문장을 발화했을 때 그 진리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불변주의적인 입장은 앞에서 제시한 은행사례에서 나타나는 직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사례들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맥락에 따른 지식귀속의 적절성 변화에 대한 직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런 직관이 타당한지에 대한 실험철학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25] 하지만 본 논문은 맥락에 따른 지식귀속의 적절성 변화에 대한 직관에 대한 실험철학적인 논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직관이 성립한다는 것을 인식론적 맥락주의와 관련된 토론에 참여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맥락주의자들이 은행사례에서 사람들이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직관(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지식귀속이 적절해 보이는 반면에,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지식귀속이 적절해 보이지 안는다) 자체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통적 불변주의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직관이 지식귀속 문장의 진리치에 대한 올바른 증거가 되지 못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직관이 의미론적인 증거가 아니라 화용론적(pragmatical)인 증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WAM(Warranted Assertibility Maneuver)[26]이다. 그러므로 WAM의 입장에서는 은행사례에서 나타나는 직관은 화용론적인 것으로 설명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직관은 나타나지만, 이것이 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착각이거나 심리적인 편향(bias)이라고 주장하는 윌리엄슨 식의 불변주의이다. 이 입장은 WAM과 마찬가지로 낮은 중요성의 경우와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지식귀속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직관이 나타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화용론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과 심리적 편향과 같은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3장에서는 전통적 불변주의를 옹호하는 WAM과 같은 불변주의와 윌리엄슨 식의 불변주의가 어떻게 은행사례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이러한 설명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논변할 것이다.

---

25) 실험철학적 방식으로 접근하여, 이러한 직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주석 10)을 참고. Schaffer and Knobe(forthecoming), Sprida and Stanley(forthcoming)의 작업은 실험철학적으로 맥락이나 실천적 중요성이 발화의 진리치에 대한 직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옹호한다.

26) DeRose(1998), pp. 195~196 참고.

3.1 전통적 불변주의의 보증된 단언가능성 책략(WAM : Warranted Assertibility Maneuver)과 그에 대한 비판

WAM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WAM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p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인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직관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p가 사실이라면 p가 가능하다는 것도 참이어야 한다. 따라서 p라는 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을 때 "p인 것이 가능하다"라고 발언하는 것 역시 참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p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p가 불가능하다"는 발화를 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으로 보인다. 진리치 참과 거짓 두 가지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p가 가능하다"는 발화나 "p가 불가능하다"는 발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p를 알고 있는 사람이 "p가 가능하다"고 발화하거나 "p가 불가능하다"라고 발화하는 것은 둘 다 잘못되었다는 직관을 가진다. 따라서 서로 모순인 두 발화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론적인 사실과 두 발화가 다 문제가 있다는 직관 사이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방식은 p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p가 가능하다"는 발화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직관이 의미론적인 것이 아니라 화용론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직관은 "p인 것이 가능하다"라는 발화가 거짓이라는 직관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하라'와 같은 단언의 적절성에 대한 화용론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단언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화용론적 규범을 지킨다면 p를 알고 있는 사람은 "p인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알고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p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에 발화자가 화용론적 규범을 지키고 있다면, "p인 것이 가능하다"를 말한 발화자는 p인 것을 알지는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implicate)한다. p를 알고 있으면서도 "p인 것이 가능하다"라고 발화를 하는 것은 p를 모르고 있다는 거짓 함축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p를 알고 있으면서도 "p인 것이 가능하다"라고 발화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린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발화에 대한 의미론적인 설명과 우리가 그 발화에 대해서 가지는 직관 사이의 모순점을 우리의 직관이 거짓 함축으로 인한 화용론적인 것이라고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을 **보증된 단언가능성 책략** (Warranted Assertibility Maneuver), 즉 **WAM**이라고 한다.

전통적 불변주의자는 맥락주의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였던 은행사례와 같은 경우를 의미론적인 직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화용론적인 직관에 관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인식론적 맥락주의와 같은 견해를 거부하고 전통적 불변주의를 옹호하는데

WAM을 이용할 수 있다. 위의 은행 사례를 WAM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불변주의 입장에서 낮은 중요성의 경우(은행 사례A)와 높은 중요성의 경우(은행 사례B)에 지식과 관련된 증거적인 측면에서 두 경우는 완전히 동일하므로, 두 경우에 지식귀속 문장의 진리치는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직관은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지식귀속 문장의 발화가 적절해 보이는 반면에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두 경우에 모순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순은 우리의 직관이 진리치에 대한 의미론적인 직관이 아니라 화용론적인 것이라고 이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론적으로 참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발화를 하는 것은 <은행이 여는 시간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와 같은 잘못된 함축을 가지므로 보증된 단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27)]

참고로 이러한 WAM 전략은 전통적인 불변주의적 입장뿐만 아니라 회의주의적인 불변주의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전통적인 불변주의적 입장에서 낮은 중요성과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각각의 지식귀속 문장의 진리치는 참인 반면에, 화용론적인 이유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지식귀속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WAM을 이용한 회의주의적 불변주의는 반대로 각각의 지식귀속 문장의 진리치가 거짓인 반면에,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화용론적인 이유로 지식귀속이 적절해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회의주의적 불변주의 입장에서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의미론적으로 거짓인 지식귀속 단언이 적절해 보이는 이유는, 그 맥락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식의 엄밀한 정확성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정확한 시각이 3시 1분인 경우에 “지금은 3시 정각”이라고 발화하는 것이 의미론적으로는 거짓이지만 맥락에 따라서 적절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3.1.1 WAM이 합당하게 적용되기 위한 드로즈의 세 가지 조건

WAM을 이용한 전통적 불변주의적 설명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드로즈의 입장이 있다. 드로즈는 WAM이 합당하게 적용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들고, 맥락주의적인 은행 사례를 WAM을 통해서 설명하는 불변주의자의 방식이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합당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드로즈가 말하는 WAM이 합당하게 적용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28)]

첫째, 겉으로 보기에 발생하는 **모순**과 같은 뚜렷한 문제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예에서 생각해보면 p를 알고 있을 때 “p가 가능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

27)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Rysiew(2001), pp. 498-502 참고.
28) DeRose(1998), pp. 198~200 참고.

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p가 가능하다”의 부정인 “p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명백한 거짓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둘 중에 하나가 참인 것은 분명하므로 이러한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참, 거짓과 같은 의미론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화용론적 함축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 함축**을 통한 화용론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전형적으로 WAM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p를 알고 있을 때 “p가 가능하다”고 발화하는 것이 의미론적으로는 참인데 왜 거짓인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서 거짓 함축을 통한 화용론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이 경우에서는 p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가 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p를 모른다는 거짓 함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발화가 잘못되었다는 화용론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드로즈는 왜 참된 함축이 아니라 거짓된 함축을 통해서 이루어진 화용론적 설명에 대해서만 WAM이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어떤 성공적인 WAM의 경우에서도 참인 단언이 거짓 함축으로 인해서 거짓인 단언이라는 직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거짓인 단언이 참된 함축으로 인해 참인 단언이라는 직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인 단언이 참된 함축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참된 함축을 가지면서 참인 단언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29] 그러므로 드로즈는 합당하게 적용된 WAM은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직관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올바르다는 직관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로, 이러한 화용론적인 설명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화용론적인 규칙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 규칙**(general rule of conversation)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앞의 경우에 p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발화자는 “p가 가능하다”는 더 약한 발화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발화자는 대화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대화 규칙[30]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WAM과 같은 화용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 규칙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1.2. WAM을 통한 불변주의적 입장에 대한 드로즈의 비판

드로즈는 은행 사례와 같은 경우를 WAM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한

29) 위의 책, pp. 199~200 참고.

30) 여기서 위배되고 있는 규칙을 그라이스의 대화 함축에 관한 원리들에서 찾아보면, 그라이스의 네 가지 범주의 격률들(maxims) 중, 양의 범주(category of quantity)에서 첫 번째의 격률인 ‘대화 현재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정도로 정보를 주도록 노력하라’는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rice(1989), pp. 26~27 참고.

다.[31] 첫 번째로, WAM과 같은 화용론적인 방식이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기에 뚜렷한 모순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은행 사례에서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은행 사례에서, 높은 인식적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와 같은 지식귀속 문장이 거짓이라는 직관만이 있을 뿐, 그런 직관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의 발화가 의미론적으로는 분명히 참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에서 WAM과 같은 화용론적 방식을 통해 설명할 동기가 되는 모순을 발견할 수 없다.

두 번째로, WAM은 특정 발화가 거짓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거짓 함축에 의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맥락주의자들의 사례에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모른다"와 같은 지식귀속을 부정하는 발화는 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을 거짓 함축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다. 은행 사례에서 높은 인식적 기준이 적용되는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모른다"는 지식귀속문장의 부정 발화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다는 직관을 가진다. 이 경우에 지식귀속문장의 부정 발화는 실제 의미론적으로는 거짓인데 참인 함축에 의해서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설명해야 하지만, 드로즈에 따르면 WAM은 거짓인 함축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불변주의자는 WAM을 통해서 지식귀속문장의 부정을 발화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세 번째로, 드로즈의 조건에 따르면 지식귀속 문장에 대한 WAM은 일반적인 대화 규칙에 의거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불변주의가 WAM을 통해서 설명하려면, 은행 사례에서 왜 높은 인식적 가능성의 경우에는 의미론적으로 참인 지식귀속 문장이 거짓인 단언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화 규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드로즈는 이러한 일반적인 대화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드로즈는 전통적 불변주의가 맥락주의자들이 의존하는 은행사례와 같은 경우를 WAM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자신이 말한 WAM을 합당하게 적용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잘못된 WAM의 적용이라고 주장한다.

3.1.3. 드로즈의 비판에 대한 제시카 브라운의 재비판 및 이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나 제시카 브라운은 전통적인 불변주의가 WAM을 통해서 은행 사례와 같은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위에서 드로즈가 제시한 조건들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만족시키고, 두 번째 조건은 WAM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하

31) DeRose(1998), pp. 201~202 참고.

지 않은 조건이라고 비판한다. 여기서는 먼저 드로즈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제시 카 브라운의 비판을 각각 소개하고, 각 비판에 대해서 바로 다시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하겠다.

① 먼저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브라운은 불변주의가 은행 사례의 직관을 유관성(relevance)이라는 일반적인 대화 규칙에 의거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2] 여기서 유관성이라는 것은 발화의 내용이 현재의 대화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불변주의자들이 특정 명제에 대해서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식적인 지위의 강도를, 주체가 배제할 수 있는 유관한 대안들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어떤 주체가 p를 아는 것은 그가 p와 유관한 대안들을 배제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때에 회의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전통적인 불변주의의 입장에서 짧은 시간 사이에 은행이 여는 시간이 바뀔 희박한 가능성은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배제해야 하는 유관한 대안이 아니다. 하지만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이런 희박한 가능성도 배제해야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전통적 불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명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유관한 대안이 실천적인 중요성이나 맥락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으므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희박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요구는 전적으로 화용론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서 한나가 “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라고 발화한다면, 이러한 단언은 <나는 은행 영업 시간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화용론적으로 함축하게 된다. 이러한 함축은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이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은행 시간이 바뀌었을 희박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발화는 그라이스가 말하는 대화 규칙[33]에 따라서 그러한 발화 당시의 상황과 유관할 것을 요구한다(Be relevant!).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안다”고 발화한다면, 이러한 발화는 그라이스의 대화규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그 상황에서 유관한 가능성인 은행이 영업시간을 바꾸었을 희박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화용론적으로 함축하게 된다. 한나는 실제로는 은행 영업 시간이 바뀌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가 “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는 발언을 한다면, 이런 발언은 그라이스의 대화규칙을 어기면서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여는 희박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짓함축을 발생시키며, 이는 자신이 처해 있는 대화 상황에서 유관하지 않은(irrelevant) 발언이다. 그러므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의 지식 귀속은 적절해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함축의 발생과 유관성의 규칙(Rule

32) Brown(2006), pp. 420~428 참고. 브라운의 이러한 설명은 원래 Rysiew(2001)의 설명에서 유래한다.

33) 여기서 관련되는 그라이스식의 대화 규칙은 네 가지 범주 중에서 세 번째 관계의 범주에서 유일한 격률인 유관성의 격률(Be relevant!)이다. Grice(1989), 27p 참고.

of relevance)에 의해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가 은행이 토요일에 여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높은 중요성의 경우와는 달리,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이 바뀔 가능성은 대화 상황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한나가 토요일에 문을 연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단언이 주체가 시간이 바뀔 희박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짓 함축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한나의 지식귀속이 현재의 대화 상황에서 충분히 유관한 발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높은 중요성의 경우와는 달리 한나에 대한 지식귀속이 적절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맥락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도 화용론적인 함축을 이용하여, 왜 우리가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참이라고 생각했던 발화가 맥락만이 달라진 상황인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서는 잘못된 발화라고 생각하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관성의 규칙은 단지 지식귀속문장에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라이스가 제시한 대화의 격률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화 규칙이다. 따라서 브라운은 불변주의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반적인 대화 규칙에 의거해야 한다는 드로즈의 WAM을 위한 세 번째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에 대한 비판 : 이런 브라운의 설명 방식은 먼저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는 발화가 표현하는 명제가, 함축에 해당하는 <한나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명제를 의미론적으로 함의(imply)[34]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35] 이 전제 하에서 뒤의 명제는 앞의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참이 될 필요가 없는 명제이다.[36] 반대로 앞의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뒤의 명제가 반드시 참이 되어야 한다면 이는 화용론적인 함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불변주의적 입장에서 함축을 통해서 은행사례를 설명하려면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는 문장과 “한나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장은 동시에 발화해도 참인 경우가 있어야 한다.

---

34) 화용론적으로 A가 B를 함축하는 것은 A가 참이어도 B가 반드시 참일 필요는 없지만, A가 발화된 맥락에서 추론할 때, B와 같은 내용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의미론적으로 A가 B를 함의한다면 A가 참일 경우 B도 마찬가지로 참이어야 한다. 이는 A가 B를 의미론적으로 함의하지 않는다면, A가 참이라고 해서 B가 반드시 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35) 이러한 지적은 그라이스가 말한 의미론적 내용과 함축 사이의 구분과 대응된다. 그라이스는 함축은 의미론적 내용과는 달리 취소될 수 있다(cancelability)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말한다.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발화 U가 가지는 함축을 I라고 했을 때, 발화가 표현하는 명제를 P라고 하면, P&~I를 내용으로 하는 발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Grice(1989), pp. 44~46 참고. 그라이스에게 이러한 취소 가능성은 내용과 함축 사이의 구분을 하기 위한 유효한 테스트이지만, 함축임에도 편안하게 취소가 잘 안 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36) 양상논리적으로 명제 A가 명제 B를 의미론적으로 함의하지 않는다는 ◇~(A→B)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A∨B)와 동치이고 이는 다시 ◇(A&~B)와 동치이다.

다시 말해 WAM과 같은 전략을 사용해서 직관적으로 참인 어떤 발화가 이상하게 들리는 현상을 그 발화가 가진 화용론적 함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발화가 표현하고 있는 명제가 그러한 화용론적인 함축에 해당하는 명제를 진리조건적으로 함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그라이스 식의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화용론적인 함축은 취소가능(cancelable)해야 한다. 화용론적인 함축에 해당되는 명제가 의미론적으로 함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다음의 경우를 통해서 이해해보자. 예를 들어서 위의 살펴본 WAM이 합당하게 적용된 예에서, “p일 가능성이 있다”는 발화는 일반적으로 <나는 p를 모른다>를 화용론적으로 함축하기 때문에, p를 아는 상태에서 “p일 가능성이 있다”를 발화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설명이 이뤄진다. 이 설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p일 가능성이 있다”는 발화는 <나는 p를 모른다>를 의미론적으로 함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p일 가능성이 있다”와 “나는 p를 안다”는 발화를 통해서 표현되는 명제는 한 맥락에서 동시에 참일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명백히 동시에 참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식의 폐쇄성을 받아들이는 불변주의적인 입장에서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와 “한나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가 표현하는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와 같은 명제가 참이라면, 같은 맥락에서 <한나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와 같은 명제 역시 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와 같은 명제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함의한다.[37] 다시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지 않았다>를 함의한다.[38] 그리고 지식이 가진 폐쇄성의 원리에 의해서 누군가가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서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는 없으므로[39],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의 폐쇄성을 받아들이는 전통적 불변주의 입장에서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와 같은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와 <한나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와 같은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는 <한나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

37) “S는 p를 안다”는 발화가 표현하는 명제는 명제 p를 함의한다.
38) 물론 은행이 여는 요일이 두 번 바뀌어서 다시 은행이 토요일에 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예외는 제외한다.
39) “나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 하지만,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와 같은 발화는 명백한 모순처럼 보인다.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를 의미론적으로 함의하므로, 앞의 명제는 뒤의 명제를 화용론적으로 함축할 수 없다.

이러한 논변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직관적으로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의 논변은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지식을 한나가 가지기 위해서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한나에게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 주장은,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가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직관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앞에서 논변했듯이 <한나의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는 명제는 폐쇄성을 통해서 <한나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고 한나가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이것은 회의주의적 불변주의를 제외한 모든 입장에서 받아들인다), 지식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가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발화는 틀렸고, 그것이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참이라는 직관은 틀린 직관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한나는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도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 직관은 왜 생기는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나가 낮은 중요성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한나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와 같은 발화가 참이 되는 인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나가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한나가 처해있는 맥락이 변화한다는 식의 답변이다. 이것은 “한나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발화의 진리값이 맥락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전제하는 설명이다. 이는 마치 통 속의 뇌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통 속의 뇌일 가능성을 그 맥락에서는 배제할 수 있지만, 자신이 통 속의 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가의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회의적 맥락에 들어서면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하는, 맥락주의적 설명방식과 유사하다. 실제로 낮은 중요성의 맥락에서 한나가 토요일에 은행이 여는지의 여부를 알고 있으므로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지 않았음을 알고, 따라서 한나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애초에 그리 중요하지 않으므로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하면 높은 중요성의 경우와 유사한 맥락에 들어가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나가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모른다는 직관을 가지게 된다. 이 직관은 참이지만 직관이 참인 이유는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지식이 되기 위해서 고려의 대상이 아닌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맥락이 높은 중요성과 같은 경우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는 마치 평소에 우리가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을 알다가도 이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면 그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게 된다는 방식의 설명과 유사하다. 루이스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지식을 손에 잡히지 않는 지식(elusive knowledge)이라고 부른다.[40]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왜 우리가 은행이 여는 시간을 바꾸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직관을 가지는가에 대한 이런 설명은 맥락주의적인 것으로, 불변주의적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설명을 받아들이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에서 보여준 논변에 의해서, 맥락에 상관없이 한나가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음을 의미론적으로 함축한다. 따라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화용론적으로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잘못된 함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나에게 지식귀속을 할 수 없다는 브라운 식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지식귀속에 따른 의미론적 함축이며,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한나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운은 이와 유사한 반대를 스스로 고려해본다. 구체적으로 브라운은 “S는 P를 알지만, S는 P에 대해서 정말로(really) 강한 인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이 명백히 비일관적인 문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41] 하지만 형식적이면서 비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한 이런 문장에 대한 직관은 불분명하다. 따라서 브라운이 말한 것과 같은 문장을 현재의 사례에 맞추어, 보다 일상적인 용어로 구체화해보자. 은행 사례에서 주체 S가 대상명제 P에 대해서 정말로 강한 인식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주체가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뀐 것과 같은 희박한 가

40)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은행이 시간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발화가 표현하는 명제와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같은 문장의 발화가 표현하는 명제가 다르다는 식의 설명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발화가 표현하는 명제는 참이지만,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같은 문장의 발화가 표현하는 명제는 거짓이다. 이런 입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41) Brown(2006), 428p 참고.

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브라운의 문장을 한나의 경우로 표현하면,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알지만, 한나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와 같은 문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브라운은 이와 같은 문장 역시 비일관적이지 않은 문장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장은 앞에서 논증했듯이 중간에 맥락이 변화하지 않는 한, 지식의 폐쇄성에 따른 함축 관계에 따라서 명백히 비일관적인 문장이다.

지금까지 전통적 불변주의의 입장에서는 지식의 폐쇄성을 받아들이면서 브라운과 같은 방식으로 WAM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브라운 식의 WAM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직관적인 폐쇄성의 원리에 따른 설명을 거부해야 한다. 만약에 지식의 폐쇄성에 대한 거부를 구체적으로 논증하지 않는다면,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표현하는 명제가 <한나는 은행이 여는 요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명제를 함축한다는 것을 보여준 위의 논변을 거부할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에 지식의 폐쇄성을 문제로 삼는다면, 핵심적인 논점은 맥락적 상황 변화에 따른 지식귀속에 대한 직관의 변화를 WAM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먼저 지식의 폐쇄성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논변들이 설득력이 있다면 지식의 폐쇄성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WAM과 같은 방식의 설명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식의 폐쇄성 자체를 거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② 브라운은 첫 번째 조건인 서로 모순되는 직관이 WAM에 대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만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42] 예를 들어서, 은행 사례에서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한나가 2주 전에 토요일에 은행이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로부터, 은행이 토요일인 내일도 문을 연다는 지식을 한나에게 귀속할 수 있다는 직관을 가진다. 반면에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같은 인식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을 한나에게 귀속할 수 없다는 직관을 가지는데, 이 두 직관은 서로 모순된다. 물론 (지표사적) 맥락주의자들은 낮은 중요성과 높은 중요성에 서로 같은 지식귀속 문장의 발화가 각각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맥락주의적인 입장을 전제할 때만 성립하는 것으로, 선결문제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브라운은 이러한 모순이 WAM과 같은 화용론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동기가 된다고 지적한다.

②에 대한 비판 : 브라운은 일상적인 지식귀속의 맥락에서 분명히 어떤 주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식이, 인식적으로 관련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단지 회

42) Brown(2006), pp. 411~413 참고.

의적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그 주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회의적인 가능성이 제기되는 높은 중요성과 같은 경우에 그 주체에게 지식을 귀속해야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 모순되는 직관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되는 직관 역시 지식귀속에 대한 한 가지 이론인 전통적 불변주의를 견지할 때에만 발생하는 모순이다. 전통적 불변주의에서는 인식적 상황이 변하지 않고서, 회의적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적인 변화만으로는 지식귀속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은행 사례에서 두 맥락에서 서로 모순되는 직관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불변주의를 전제하지 않고, 단지 은행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직관을 보여주는 가만을 고려한다면 WAM을 고려할 동기가 되는 모순은 발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WAM을 촉발시키는 경우들과는 달리, 은행 사례와 같은 경우들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직관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단지 은행 사례에서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지식을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는 직관을 가지고,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서는 지식을 귀속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직관을 가질 뿐이다. 오직 전통적 불변주의를 전제할 때에만, 낮은 중요성의 지식귀속에 대한 직관과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서 지식귀속이 안 된다는 직관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WAM을 통해서 설명하는 동기가 되는 사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이론적 입장을 전제할 때에만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직관적으로 이상하다는 견해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p를 알고 있으면서 “p가 가능하다”라고 발화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p가 불가능하다”라고 발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하다. 이러한 직관적인 모순이 이를 WAM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동기가 된다. 그리고 이 직관은 어떤 특정 이론적 입장을 전제할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와는 달리 전통적 불변주의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별다른 모순을 발견할 수 없는 은행 사례와 같은 경우는, WAM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 한다.[43] 따라서 브라운이 말하는 WAM을 이용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하는 모순은 전통적인 불변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그가 선결문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차이점은 은행 사례와 같은 경우에

43) Pritchard(2005)는 회의적 가능성이 제기되는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단지 “한나가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발화하기를 꺼릴 뿐만 아니라, “한나가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발화하는 것도 꺼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WAM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모순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경우는 Prichard(와 그가 조사한 다른 사람들)는 다른 직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가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안다”는 발화를 하는 것을 꺼릴 뿐만 아니라, “한나가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모른다”는 발화도 망설임 없이 한다는 것이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직관이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른 직관을 근거로 WAM이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옹호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겠다.

다른 WAM과는 달리 하나의 맥락 내에서 모순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든 WAM의 전형적인 사례는 p를 알면서도 “p가 가능하다”는 발화와 “p가 불가능하다”는 발화를 하는 것이 둘 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사실과 관련되었다. 이것은 한 맥락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명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화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어야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문제였다. 하지만 브라운의 설명에서 발생하는 모순은 하나의 맥락이 아니라, 회의적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실천적 중요성이 달라져서 서로 다른 맥락 하에서 동일한 명제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발화가, 한 경우에 적절해 보이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통적 불변주의와 다른 입장이 대립한다. 그러므로 브라운이 말하는 은행사례에서 나타나는 맥락 간에서 발생하는 모순은 기존의 WAM을 통해서 설명되는 하나의 맥락 내에서 나타나는 모순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앞에서 말했듯이 불변주의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애초에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된다.

따라서 브라운이 옹호하는 WAM을 통한 설명은 드로즈가 말하는 첫 번째 조건인 겉보기에 뚜렷한 모순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 그의 WAM을 통한 설명은 어떤 이론적 입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겉보기에 뚜렷한 모순이 있는지를 보일 수 없고, 다른 WAM의 경우와는 달리 단일한 맥락 하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③ 브라운은 불변주의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은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드로즈가 제기하는 조건 중에서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어떤 단언이 거짓이라는 직관에서만 WAM과 같은 설명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WAM을 합당하게 적용하기 위한 타당한 조건이 맞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44] 앞에서 말했듯이 드로즈가 이런 조건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단언이 옳다는 직관을 가지는 경우에 진리조건적으로는 거짓인 단언임에도 참인 함축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단언이 보증된 단언이 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라운은 언어 철학의 연구들이 이미 그러한 사례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드로즈가 자신의 두 번째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브라운이 말하는 진리조건으로는 거짓임에도 화용론적으로 참된 함축을 통해서 보증된 단언이 되는 사례를 생각해보자.[45]

---

44) Brown(2006), pp. 413~419 참고.

45) 이 예는 Brown(2006), 425p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이 예는 그라이스가 유관성의 규칙(rule of relevance)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Grice(1975), 66p에서 다루고 있는 예를 가져온 것이다. 브라운은 이 외에도 의미론적으로 거짓이지만, 화용론적으로 참인 사례를 자신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한

정비소의 예 : 당신이 차를 수리해야 되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근처에 정비소가 있나요?”라고 묻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이 경우에 관련되는 정보는 단지 근처에 정비소가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그 정비소가 열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행인이 “예, 저 쪽 코너를 돌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단지 정비소가 그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그 정비소가 문을 열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런데 만약에 행인이 정비소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은 그 정비소가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경우에, 물어본 사람에게 “근처에 정비소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의 발언은 비록 거짓이지만, 적절하게 발화된 보증된 단언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관련된 정보가 정비소가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행인이 그 정비소가 있다고 단언한다면 그 곳이 문을 열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함축하게 되기 때문이다.[46] 따라서 이런 함축을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정비소가 없다고 발언하는 것이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더 적절한 단언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유관하게 발언하라(Be Relevant)’와 같은 그라이스 식의 일반적인 대화 격률을 따르면서, 비록 거짓을 발화하고 있지만 보증된 단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WAM을 통한 설명이 반드시 거짓함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드로즈의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드로즈의 조건을 거부함으로써, WAM을 채택하는 불변주의적인 입장은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토요일에 은행이 문을 연다는 것을 **모른다**”는 단언이 어떻게 올바른 단언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불변주의적 입장에서 이러한 단언은 거짓이지만 참된 함축을 가지기 때문에 보증된 적절한 단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 단언이 표현하는 참된 함축은 한나가 은행이 문이 여는 시간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함축이다. 높은 중요성의 상황에서 한나가 자신이 모른다고 발언할 경우, 은행 문이 여는 시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중요시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단언은 비록 거짓이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참된 함축을 가진다. 다시 이런 참된 함축으로 인해서 이 단언은 보증된 단언이 된다.

거짓된 단언이 참된 함축을 전달하기 때문에 보증된 단언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WAM은 참된 단언이 거짓된 함축을 전달하는 경우만을 설명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드로즈의 주장을 브라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지는 도넬란이 주장한, 거짓인 한정기술구를 포함한 발화가 지칭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올바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올바르게 보이는 이유가 발화가 가지는 화용론적인 함축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러셀주의자의 경우이다. 다른 한 가지는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가 이 사람은 예전에 밥을 먹은 적이 있으므로 거짓이지만, 최근에 밥을 먹은적이 없다는 화용론적으로 참인 함축을 전달한다는 바흐Kent Bach의 입장의 경우이다. 이런 두 가지 사례가 여기서 보여주는 정비소의 사례에 비해서 더 나은 사례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 이를 별도로 다루지 않겠다. Brown(2006), pp. 415~419 참고.

46) 물론 “근처에 정비소가 있지만,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이면서도 가장 적절한 단언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근처에 정비소가 없다”라는 단언이 비록 거짓이지만 적절해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다. 그리고 그는 다시 참된 함축을 통해서 은행사례에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모른다”는 단언이 어떻게 적절한 단언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③에 대한 비판 : 브라운이 지적한대로 WAM과 같은 설명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드로즈가 말한 것처럼 직관적으로 거짓으로 보이는 참인 진술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지식귀속 문장을 단언하는 경우에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지식귀속이 의미론적으로는 거짓이고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보장된 단언 가능성과 같은 것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지식귀속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참인 함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경우와 명백히 다르고 추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위에서 든 정비소의 예와 지식귀속의 경우를 대조해보자. 정비소의 예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한 “근처에 정비소가 없다”와 같은 발언은 비록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소는 닫았기 때문에 적절해 보였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 근처에 정비소가 하나도 없느냐?”는 식으로 행인의 발화가 엄밀하게 혹은 문자 그대로(literally) 참인지를 묻는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한다면, 행인은 “내가 말한 것은 사실 문을 연 정비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47]거나 “사실 근처에 정비소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은 거짓이지만, 그 정비소는 문을 닫은 곳이라서 정비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식으로 자신이 그런 거짓인 발화를 한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다시 말해, 발화자였던 행인은 자신의 이전 발화의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미 명시적으로 알고 있었거나 자신의 발화를 반성해 봄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에서의 발화자는 자신의 발화의 의미적 내용을 알고 의도적으로 함축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식귀속의 사례에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서 제 3자에 해당하는 존과 같은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단언을 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이 발화자 존에게 “정말로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모르냐?”는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존의 대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경우에 존은 “그래. 한나는 정말로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몰라”나 “그래. 한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47) 애초에 차를 수리하려던 사람인 던진 질문이 “근처에 (지금 차를 고칠 수 있는) 정비소가 있나요?”라는 식으로 괄호 안의 내용을 생략해서 물은 것으로 해석하고, 행인이 “근처에 (지금 차를 고칠 수 있는) 정비소는 없습니다”라고 괄호 안의 내용을 생략해서 답변했다고 해석한다면, 행인이 말한 것은 의미론적으로 거짓이 아니라 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라이스가 이 예를 도입한 의도를 존중하고, 이런 해석의 가능성은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다룰 필요는 없으므로,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배제하겠다. 따라서 “내가 말한 것은 사실 문을 연 정비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였다”와 같은 행인의 발언은 “근처에 정비소가 없다”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의미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화용론적인 함축이었다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고 좀 더 정보를 찾아야 할 것 같다"와 같이 자신이 이전에 한 발화가 여전히 의미론적으로 참이었음을 고집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존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볼 것이다. 브라운이 주장하는 대로 은행 사례에서 높은 중요성의 경우가 단지 참인 함축이 거짓인 단언을 보증한 것이라면, 발화자 존에게 "정말로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모르냐"는 식으로 질문을 던진 상황에서, 존은 "아니 실제로는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아는데, 다만 은행이 여는 시간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모른다고 말했을 뿐이야"라고 답변해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상하며 그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반응이 나왔다면 인식론적 맥락주의는 문제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전통적 불변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존이 이전에 한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모른다"와 같은 단언이 거짓인데 함축에 의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발화자 존은 자신이 한 발언의 진리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존이 자신이 한 발언의 진리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그에게 자신의 발언이 적절해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발언의 함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발언이 의미론으로 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변주의자들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존의 발언의 진리치를 평가해달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참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도 존의 발언이 적절해 보이는 것은 역시 함축이 아니라 그 발언이 의미론으로 참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통적 불변주의자들은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모른다"와 같은 단언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참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지식귀속의 단언이 참인 함축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라는 WAM식의 설명을 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 전통적 불변주의자는 정비소의 예와 같은 거짓인 발화를 참인 함축을 통해서 설명하는 다른 사례와는 달리, 은행 사례의 경우에는 발화자가 자신의 발언이 가지는 진리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발화자가 자신의 발언이 가지는 진리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위해서는, 발화자는 자신이 발화가 표현하는 의미론적 내용을 잘못 알고 있거나 주체가 지식귀속과 관련하여 어떤 인식적 상태에 있는지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참인 함축을 통해서 단언의 적절성을 설명하는 다른 WAM의 경우와는 명백히 다르다. 따라서 브라운과 같이 은행사례를 WAM을 통해 설명하려는 입장에서는, 왜 은행사례에서만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답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WAM을 통해서 은행 사례를 설명하려던 불변주의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의 대응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둘 중에서 어

떤 입장을 취하든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앞에서 말한 존과 같은 경우가 자신이 높은 중요성을 가진 상황에서 하는 지식귀속 발화가 표현하는 의미론적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 다른 화용론적 함축에 의해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달리, 왜 은행사례와 같은 경우에만 발화자가 자신이 말하는 표현의 의미론적 내용을 잘못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더불어 이러한 발화자의 의미론적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다른 WAM과 같은 경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WAM을 통해서 다뤄지는 다른 사례에서는 어떤 단언이 적절한지 평가하면서 의미론적 내용의 참, 거짓에 대한 직관과 화용론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직관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지만, 의미론적 내용 자체를 잘못 아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백한 차이점은 당연히 존의 지식귀속과 같은 경우가 WAM과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기에 적절한 경우인지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일으킨다.

더구나 WAM의 방식이 의존하고 있는 그라이스 식의 화용론적 함축은 자신의 발화 내용과 발화 맥락에서 주어지는 정보, 그리고 대화 규칙과 같은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48] 그런데 만약에 "한나가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발화를 하는 사람이 애초에 자신이 말하는 내용의 진리조건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발화자가 화용론적 함축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발화자가 발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라면, 발화자는 WAM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인 문장을 참인 함축을 통해서 적절하게 발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짓인 문장을 진리조건을 잘못 알고 참인 것으로 오해하여 발화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WAM에 의존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실수 이론(error theory)이다.

그러므로 은행 사례의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모른다"는 식의 판단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지식귀속 거부의 의미론적 내용을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지식귀속에 대해서는 자신이 말하는 의미론적 내용을 모른다는 실수 이론에 개입(commitment)하게 하는 것이다. 실수 이론에 개입하는 것은 지식귀속과 관련된 의미론적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킨다. 물론 맥락주의와 같은 입장도 철회논증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실수이론에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9] 하지만 앞에서 본 WAM을 통한 불변주의가 개입하고 있는 실수 이론은 맥락

48) 그라이스는 대화 함축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 사용된 단어들의 규약적인 내용과 관련된 지시체들에 대한 식별(identity) (2) 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and its maxims) (3) 발화에 관한 맥락과 언어학(linguistic) 등 (4) 배경 지식에 관련된 다른 사항들 (5) 대화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거나 가정하고 있는 이전 주제와 관련된 사항들. 이 중에서 (1)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규약적인 내용이 발화하는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에 해당한다. Grice(1989), 31p 참고.

49) 맥락주의에 따르면 맥락의 변화에 따라서 발화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발화자는 그 변화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오늘은 토요일이다"라는 발화를 토요일날 했고, 다음날 "오늘은 토요일이 아니

주의자가 말하는 실수이론에 비해서 추가적인 이론적 부담을 지니게 된다. “flat”과 같이 맥락민감적인 단어이지만 이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맥락주의는 기존의 맥락민감성을 지닌 단어에 대해서도 그 의미론적 특성을 쉽게 알지 못 하는 일반인들의 판단에 의존하여 “알다(know)”라는 단어에 대해서 보여주는 실수를 해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맥락주의는 기존의 의미론을 통해서도 이러한 실수이론이 의존 할 수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WAM을 통해 자료를 설명하려는 불변주의식으로 우리가 자신이 발화하는 문장의 진리조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숨겨진 맥락민감성이 없는 자신의 발언이 어떤 진리조건을 가지는지를 숙고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없지만 전혀 문제없이 함축을 통해서 일상적인 발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이한 경우를 어떤 기존의 의미론에 의존하여 설명할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WAM에 의존하는 불변주의자는 맥락주의의 실수 이론에 비해서도 더 큰 추가적인 이론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존의 지식귀속과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치를 잘못 아는 것이, 주체가 지식귀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지식귀속과 관련된 정보를 귀속자나 그 상황을 평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설득력을 잃게 된다.[50] 맥락주의자들의 사례는 그 사례에서 지식귀속과 관련되어 필요한 관련된 정보가 실제 사실에 맞게 발화자에게 주어진다는 가정 아래에서 구성될 수 있으며, 그것을 의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사례의 경우에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지식귀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한 모든 정보들이 주어질 수 있고, 불변주의가 옳다면 이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도 지식귀속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지식귀속 문장의 진리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은행 사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입장은 설득력 있게 주장되기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은행사례에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모른다”와 같은 지식귀속문장의 부정을 발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이유를, WAM을 이용하여 거짓인 단어이지만 참인 함축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은

다”라는 발화를 한다고 해서 이 경우에 “오늘은 토요일이다”라고 토요일날 철수가 한 발화를 철수 자신이 철회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식귀속 문장의 경우에는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안다”라고 발화하고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발화했을 때, 이런 발화가 단지 맥락의 변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발화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오늘은 토요일이다”와 같은 일반적으로 맥락민감적인 단어를 포함한 문장을 발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는 다르다. 이것은 지표사적 맥락주의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논증을 **철회논증**이라고 부른다. 지표사적 맥락주의자는 대체로 실수이론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MacFarlane(2005) 참고.

50) Montminy(2009), 646p 참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른 화용론적인 설명이 가능한 경우와 달리 발화자가 자신이 발화하는 내용의 진리치를 착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다르고, 이 차이를 합당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3.1.4. WAM을 통한 전통적 불변주의에 대한 소결

결론적으로 제시카 브라운이 말한 것과 같이 맥락주의자들이 자신의 근거로 삼는 은행 사례와 같은 경우가 WAM을 통해서 전통적인 불변주의 입장 내에서도 수용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드로즈가 제시한 WAM을 통한 설명이 가능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브라운은 두 가지는 받아들이고 한 가지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두 가지 조건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 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가지 조건도 지식귀속의 사례에서는 거부할 경우에 심각한 추가적인 문제점을 낳는다는 것을 앞에서의 논변을 통해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비판은 브라운 식의 WAM을 통한 불변주의 옹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WAM을 통한 불변주의 옹호 일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2 윌리엄슨식의 전통적 불변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윌리엄슨은 지식귀속의 기준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는 앞에서와 같은 사례들에 대해서,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여는 것을 안다”와 같은 문장의 발화가 가지는 진리치가 맥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불변주의와 마찬가지로 맥락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윌리엄슨의 견해는 전통적 불변주의와 지식귀속 문장에 대한 의미론적 측면에서 같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WAM을 이용하는 전통적 불변주의와는 달리, 그는 지식의 반투명성이나 심리적 편향과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의 직관이 지식귀속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은행사례와 같은 경우를 설명한다. 이러한 전통적 불변주의 입장을 여기서는 **윌리엄슨식의 불변주의**라고 부를 것이다.

3.2.1 윌리엄슨의 지식에 대한 반투명성 논제에 의한 불변주의

윌리엄슨 식의 불변주의가 은행 사례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과 실천적 추론의 전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윌리엄슨의 견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실천적 추론의 전제와 지식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명제 p가 어떤 사람의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적합하다는 것은 그 명제를 알기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음

과 같은 원리 KPR1을 받아들인다.

KPR1 : 어떤 사람이 p를 안다 iff p는 그 사람의 실천적 추론을 위해서 적합한 전제이다.[51]

다음으로 윌리엄슨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식의 투명성과 관련된 그의 견해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투명하다**(luminous)고 부른다 : 어떤 조건 c가 투명하다 iff 모든 경우 α에 대해서 만약 α에서 c가 성립하면, α에서 그 조건 c가 성립한다는 것을 아는 위치에 있게 된다.[52] 윌리엄슨은 사소하게 성립되는 조건(모든 경우에 성립되는 조건) 외의 모든 조건은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를 엄밀하게 형식화된 논증을 통해서 보여준다.[53] 그러므로 사소하지 않게 성립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지식과 관련된 명제에 대한 2차적 지식(p를 아는 것을 아는 것)은 그 명제에 대한 1차적 지식으로부터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어떤 명제를 알고 있지만 그 명제를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가능하다. 윌리엄슨이 생각하기에 주체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겨우 충족시킨 경우에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주체가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에 대한 지식, 즉 2차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윌리엄슨의 생각을 **지식에 대한 반투명성(anti-luminosity) 논제**, 줄여서 **반투명성 논제**라고 부르자.

이와 같이 KPR1, 즉 '어떤 사람이 p를 안다 iff p는 그 사람의 실천적 추론을 위해서 적합한 전제이다'는 지식과 실천적 추론 사이의 원리와 지식의 반투명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제한 뒤에, 윌리엄슨은 이를 가지고 앞에서의 은행 사례를 설명한다. 그가 보기에 은행사례와 같은 경우는 지식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만족시킬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준을 아주 높게 초과하여 만족시킬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나가 "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여는 것을 안다"(Kp, 여기서 "K"는 "안다(know)"에 해당하는 술어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p"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명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와 같은 지식귀속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참이지만, 그녀는 그 지식귀속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에 대한 2차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한 인식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은행 사례의 어떤 경우에서든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여는 것은 알지만, 은행이 토요일에 여는

51) Williamson(2005), 231p 참고. 이러한 KPR1의 정식화는 Brown(2005), 320p를 따르고 있다.
52) Williamson(2000), pp. 94~96 참고.
5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Williamson(2000), pp. 96~98 및 pp. 114~119 참고.

것을 아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KPR1에 따르면, 낮은 중요성의 경우와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명제 p는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는 적합하지만, 한나는 p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p가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안다는 것(즉, Kp)을 알아야 하는데(KKp), 그녀는 이런 2차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윌리엄슨은 p가 한나에게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는 윌리엄슨이 추가로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54]

KPR2 : 만약에 중요성이 높은 경우라면 주체가 p가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적합하다는 것을 모른 채로 p를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이용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은행사례에서 낮은 중요성의 경우와 높은 중요성의 경우는 모두 p를 알기 때문에 p를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다. 하지만 KPR2에 따라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p를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는 p를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단순히 적합한 것으로는 부족하며, p를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하는 적합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KPR1에 의해서 KKp가 요구된다. 그러나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p와 같은 명제가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적합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p를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하기 위해 KKp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Kp를 알지 못 하면서 p를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한다면,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위의 KPR2로 인해서 비난받게 되지만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비난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p를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Kp 역시 성립한다는 직관을 가지고,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p를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Kp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직관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윌리엄슨은 은행사례에서 각각의 경우에 나타나는 실천적 추론과 관련된 직관의 차이를 설명한다.

54) Williamson(2005) pp. 230~233 참고. 이러한 KPR2의 정식화는 Brown(2005), 320p를 따르고 있다.

3.2.2 윌리엄슨의 반투명성 논제에 의존한 설명이 가지는 문제점

앞에서 제시한 윌리엄슨의 설명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가 전제하고 있는 지식의 반투명성에 대한 견해 및 KPR1과 KPR2와 같은 원리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한 선택지이지만, 본 논문에서 이러한 비판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윌리엄슨의 이러한 전제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그의 설명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더 강한 비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기한 은행사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① 은행 사례는 2차적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가?

윌리엄슨의 설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은행사례와 같은 맥락주의자들이 예로 드는 경우가 지식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고 가정해야 하지만, 은행사례와 같은 예가 이런 경우라고 받아들일 합당한 이유가 없다. 앞에서 설명한 윌리엄슨의 설명에 따르면,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KKp가 요구되는데 주체가 KKp의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가 p를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직관을 가진다. 불변주의적 입장에서는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주체가 KKp의 상태에 있지 않다면 인식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도 KKp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윌리엄슨의 설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은행사례와 같은 경우는 KKp와 같은 것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은행사례와 같은 경우가 KKp, 즉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안다와 같은 것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을 받아들일 설득력 있는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은행이 토요일에 연다는 것을 안다(Kp)는 직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시 한나가 이를 안다(KKp)는 뚜렷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윌리엄슨에 따르면 어떤 명제 p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하는 것과 같은 2차적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주체가 아는 상태이지만 주체가 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와 매우 유사한 상태이어야 하는데, 은행 사례의 경우에 한나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왜 이런 상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찾기 어렵다.

더구나 만약에 은행사례가 주체가 2차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는 윌리엄슨의 가정이 옳다면,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주체가 2차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지식귀속문장을 단언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윌리엄슨이 은행사례에서 낮은 중요성과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은행은 토요일에 문을 연다>와 같은 명제가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보이는 직관의 차이를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설명은 낮

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의 “나는 토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안다”(Kp)와 같은 지식귀속문장의 발화가 적절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윌리엄슨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언을 위한 지식 규칙(Knowledge rule for Assertion, 줄여서 KRA)을 받아들인다. **KRA : ‘어떤 사람이 p를 알 경우에만, p에 대한 보증된 단언을 하고 있다.’** 이 규칙을 받아들일 때[55],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서 Kp와 같은 발화는 보증된 단언이 되지 않는다. Kp에 대한 보증된 단언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규칙에 따라서 KKp가 요구되는데, 이미 언급했듯이 윌리엄슨에 따르면 은행사례는 KKp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Kp와 같은 단언은 직관적으로 적절한 단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이다. 앞에서 WAM을 이용한 불변주의를 논의할 때 이런 적절성에 대한 직관이 이 단언이 보증된 단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야기 했다. 그러므로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Kp를 발화하는 것은 보증된 단언이다. 그렇지만 윌리엄슨에 따르면, KKp인 경우에만 Kp가 보증된 단언이 될 수 있으므로, 왜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Kp를 단언하는 것이 보증된 단언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윌리엄슨이 대화적으로(conversationally) 보증된 단언과 증거적으로(evidential) 혹은 인식적으로(epistemically) 보증된 단언을 구분할 때 해결된다. 대화적으로 보증된 단언이란 해당하는 대화 상황에서 적절한 단언을 말한다. 앞에서 봤듯이 화용론적으로 적절한 단언도 대화적으로 보증된 단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윌리엄슨이 KR에서 말하는 보증된 단언이란 증거적으로 보증된 단언을 말한다.[56] 윌리엄슨의 입장에서 증거적으로 보증된 단언은 발화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 의해서 보증된 말한다. 윌리엄슨에게 증거란 지식과 같은 것이고, p가 증거에 의해서 보증된다는 것은 p를 아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에게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Kp의 단언은 대화적으로는 적절한 보증된 단언이더라도, 발화자가 KKp인 상태에 있지는 않으므로 인식적으로 보증된 단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Kp를 발화하는 것이 KRA와 같은 원리를 위배하는 것은 아니며 Kp의 단언이 적절해 보이는 것은 대화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윌리엄슨에게는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지식귀속문장의 단언이 인식적으로 보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화적으로는 보증된 단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

55) 이런 규칙을 받아들여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규칙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윌리엄슨 자신이 받아들이는 원리를 가지고 윌리엄슨의 논의를 비판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규칙의 타당성 자체에 대한 논의는 피하겠다.

56) 제시카 브라운은 Brown(2005a)에서 윌리엄슨이 KR에서 ‘보증된(warranted)’가 의미하는 것이 인식적으로 보증된 것, 즉 그 명제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Brown(2005a), pp. 272~277 참고. 이런 윌리엄슨의 생각은 Williamson(2000), 243p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윌리엄슨은 KR에서 나오는 ‘보증된’이란 말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술적 용어(term of art)라는 점을 밝힌다.

위해서 윌리엄슨은 Kp가 참이기 때문이라는 식의 의미론적인 이유를 들 수는 없다. 그의 생각대로라면,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KKp가 성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Kp가 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여 WAM과 같은 화용론적인 이유로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Kp를 단언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설명을 하는 것도 어렵다. 앞에서 WAM을 통한 불변주의를 비판하면서 말했듯이, 원래 지식귀속의 진리치를 알지 못 하면서 어떤 화용론적 함축을 통해서 지식귀속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를 낳는다.

그렇다면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지식귀속이 비록 Kp를 알면서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Kp에 대해서 합당한(reasonable) 믿음을 가지고 발화했기 때문에 증거적으로 보증된 단언은 아니지만, 대화적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어떤가? 하지만 과연 의미론적으로도 화용론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명제에 대한 단언이, 그 명제에 대한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적절한 단언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Kp에 대해서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Kp를 발화하는 것보다는 참인 발언에 해당하는 “Kp일 것 같다”와 같은 식으로 발화하는 것이 대화적으로 보다 적절한 발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화용론적인 이유로 “Kp일 것 같다” 대신에 “Kp"라고 발화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이 경우에 최소한 발화자가 자신이 화용론적 함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은행사례와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여전히 Kp를 발화하는 것이 대화적으로 보증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결국 남은 윌리엄슨의 선택은 지식의 반투명성에 의존해서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지식귀속 단언의 적절성도 설명하는 것이다.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Kp의 단언이 적절해보이는 것은 발화자가 KKp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BKKp). 하지만 실제로 발화자는 ~KKp인 상태에 있으므로 BKKp라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따라서 사실 Kp라는 단언이 우리에게 적절해 보이는 것은 BKKp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는 착각 때문인 것이다. 이런 관점을 밀고 나가면, 회의적 논변에 노출 가능한 대부분의 경험적 지식들에 대한 일상적 단언이 적절하다는 우리의 직관은 실제로는 광범위한 착각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런 광범위한 실수 이론은 가능하지만 가능한 피해야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낮은 중요성의 경우가 2차적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라는, 윌리엄슨의 가정은 받아들일 합당한 이유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다고 해도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지식귀속문장 단언의 적절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를 낳는다.

② 은행사례를 2차적 지식이 성립하는 사례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시카 브라운은 설령 은행사례가 윌리엄슨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2차적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맥락주의자들은 이 2차적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를 주체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명백히 2차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예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57] 예를 들어서 은행 사례에서 한나가 실제로 은행 안에 들어가서 경비원에게 토요일에 은행이 문을 여는지 확인해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도 지식귀속이 참이라는 판단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증거를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 한나는 상당히 강한 인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불변주의의 관점에서서도 한나는 단지 Kp인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KKp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p가 지식인지의 여부가 **극단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경비원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극도로 희박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한나는 분명히 KKp인 상태이지만 p를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는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극단적으로 높은 중요성 경우의 주체는 2차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락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관(극단적으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주체가 p를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혹은 p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은 여전히 성립한다. 따라서 2차적 지식을 가지는 경우에도 p가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적합하지 않다는 직관 혹은 p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직관이 성립하는 은행사례와 같은 경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2차적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주체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든다는 윌리엄슨의 설명은 옳지 않다.

윌리엄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2차적 지식이 아니라 3차적 지식이나 그 이상의 고차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고차적 지식이 없다는 것이 p가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의 원인이라고 대응할 수 있다.[58] 이에 대해서 비판자들은 다시 은행사례와 같은 경우를 명백히 고차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맥락에 따라서 지식귀속에 대한 직관이 달라지는 경우로 수정해서 다시 똑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윌리엄슨은 이런 수정에 대해서 여전히 더 고차적인 지식의 부재가 맥락에 따른 지식귀속 진리값 변화에 대한 직관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고수할 수 있다. 그런데 윌리엄슨의 이런 대응은 단순히 위에서 주어진 KPR2만으로는 불가능하며, KPR2를 수정한 KPR2+ 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

57) Brown(2005b), 323p.

58) Williamson(2005a), pp. 233~234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런 식의 대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KPR2+ : 만약에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주체가 p가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적합하다는 것에 대한 n차(n의 값은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커진다)의 지식을 가지지 않고 p를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이용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KPR2+와 같은 수정은 주어진 비판에 대해서 임시방편적이고 무한후퇴를 불러오는 대응으로 보인다. 비판자들이 고차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맥락주의적 사례가 구성되는 경우를 만들면 윌리엄슨은 다시 그보다 더 고차적인 지식의 결여가 원인이라고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대응은 윌리엄슨의 지식의 반투명성에 의한 설명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를 봉쇄할 것이다.

더구나 KPR2보다 KPR2+는 직관적으로 훨씬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리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성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차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p가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 이용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말한 은행 경비원에게 물어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 주체가 확실히 2차적 지식 혹은 그보다 더 고차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주의적 사례가 구성가능한 것을, 윌리엄슨은 해당 사례에서 주체가 더 고차적인 지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고차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맥락주의적인 사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명확하지만, 이 사례에서 보여주는 직관이 고차적인 지식의 결여 때문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따라서 윌리엄슨이 자신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고차적 지식의 부재에 의해서 옹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입장이 가지는 직관적 설득력은 상당히 약해 보인다.

③ 지식귀속 문장의 부정을 발화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윌리엄슨 식의 지식의 반투명성에 의한 설명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그의 설명이 왜 우리가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지식귀속을 꺼리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토요일에 은행이 문을 연다는 것을 **모른다**"와 같은 귀속 문장의 부정을 발화하게 되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처럼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Kp를 모른다(~KKp)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KKp가 ~Kp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윌리엄슨은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왜 한나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발화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고 이것은 그의 투명성 논제에 의한 설명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59] 윌리엄슨도

59) 드로즈는 DeRose(2009), pp. 109~117에서 이러한 화자가 단순히 지식귀속문장을 발화하지 않을 뿐만이 아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심리적 편향(psychological bias)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①, ②에서 제시한 문제점인 은행 사례와 같은 맥락주의자들의 사례가 윌리엄슨의 설명이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2차적 지식을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은 윌리엄슨의 투명성 논제에 의존한 설명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공격한다. ③의 문제점인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Kp와 같은 문장을 발화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 한다는 점은 그의 설명이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심리적 편향 설명과 같은 다른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한다는 불완전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3.2.3. 심리적 편향(psychological bias)에 의한 설명

앞에서 문제제기 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가 지식귀속 문장의 부정을 발화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윌리엄슨은 심리적 편향 개념을 이용한다.[60] 사람들은 높은 중요성과 같은 경우에 회의적인 상황이나 가능성이 그럴듯하게 제기되고 이런 회의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그 가능성을 실제보다 더 높고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심리적인 경향성이 있다. 그는 이런 경향성을 **심리적 편향**(psychological bias)이라고 부른다. 이 경향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낮아서 지식이 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위협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보다 높게 생각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은행 사례의 경우에 한나는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도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부인이 제기하는 것과 같은 회의적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그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게 만들어 자신이 모른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한다. 윌리엄슨은 지식의 반투명성에 의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일어나는지를 이처럼 심리적 편향을 통해서 설명한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시카 브라운은 윌리엄슨 식의 반투명성 논제는 맥락주의자들의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으며 심리적 편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61] 그녀는 윌리엄슨 식의 반투명성 논제에 의한 설명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원래의 은행사례와 같은 경우가 한나는 알고 있지만 한나가 안다는

니라 지식귀속문장의 부정을 발화한다는 사실이 맥락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주요한 데이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어떤 단언을 발화하기를 꺼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자가 단언의 부정을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한 방식의 발화가 그 단언의 적절성이 아니라 진리조건에 관련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0) Williamson(2005), pp. 234~235 참고.

61) Brown(2005b), pp. 324~326 참고.

것을 알 수는 없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심리적 편향에 의해서만 맥락주의적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62] 윌리엄슨처럼 지식의 반투명성과 심리적 편향이라는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 이론의 결합을 통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과, 브라운의 심리적 편향만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이 있고, 이 두 관점이 현상을 둘 다 동일한 설명력을 가진다면, 후자의 관점이 둘 중에 더 나은 관점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불변주의 입장에서 심리적 편향 개념만을 이용해서 은행사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나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는 높은 중요성과 같이 실천적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모르고 있음에도 알고 있다고 착각했을 때 발생할 심각한 결과를 우려하여, 은행이 문을 여는 요일이 갑자기 바뀌는 것과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회의적 가능성을 진지하고 주의 깊게 고려하게 된다. 한나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가능성은 실제로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는 희박한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가능성을 실제보다 심리적으로 높게 평가하게 만든다. 결국 한나는 이러한 가능성을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한나가 처해 있는 인식적인 지위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강하지 않다. 그 결과 실제로 한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지식귀속 문장의 부정을 발화하는 것은 이런 착각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거부하는 현상,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현상을 투명성 논제와는 관련 없이 심리학적 편향에만 의존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참고로 브라운에 따르면 은행사례와 같은 경우에 윌리엄슨이 말하는 지식의 반투명성은 심리적 편향의 결과물이다.[63] 전통적 불변주의 입장을 전제한다면, 만약 은행 사례에서 낮은 중요성의 경우에 2차적 지식이 성립하면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도 2차적 지식이 성립해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심리적 편향의 영향으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한나는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Hannah believes that she doesn't know it). 그리고 이 믿음은 2차적 지식의 존재와는 모순된다. 2차적 지식이 있으려면 필요조건으로 한나는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Hannah believes that she knows it). 따라서 심리적 편향의 영향으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는 2차적 지식 혹은 고차적 지식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윌리엄슨의 지식의 반투명성 설명이 심리적 편향 설명과 독립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은행사례에서 보이는 지식의

62) 위의 논문, 323p에서 브라운은 스스로 맥락주의자들이 윌리엄슨의 설명에 대응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서 제시한다.

63) Brown(2005b), pp. 325~326 참고.

반투명성이 심리적 편향의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식의 반투명성 논제 자체는 심리적 편향 설명이 성립되기 위한 필요조건 역할을 한다. 지식이 완전히 투명하다면 2차적 지식 역시 성립할 것이고,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게 되는 심리적 편향과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지식의 반투명성이 심리적 편향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윌리엄슨의 지식의 반투명성에 의존한 설명이 심리적 편향 설명과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2차적 지식의 부재가 심리적 편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3.2.4 심리적 편향 설명의 문제점

브라운은 윌리엄슨의 설명 방식을 수정하여 심리적 편향에만 의존한 설명을 통해서 맥락주의가 제기하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리적 편향 설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스탠리가 말한 것처럼 은행 사례의 경우는 심리적 편향이나 프레임 효과(framing effect)[64]가 발생한 사례와는 달리 지식과 실천적 추론간의 관계와 같은 특정한 이론적 입장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패턴화 되어) 있다.[65] 일반적으로 실천적 추론의 합리성과 같은 것에 대한 일상적 화자들의 판단은 심리적 편향과 같은 것에 의해서 잘못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편향은 어떤 정보에 대한 심리적인 치우침이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만들어 내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납 1kg과 솜 1kg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겁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납 1kg이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이런 치우침은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장애일 뿐이다. 그러나 스탠리에 따르면 은행 사례의 경우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대부분의 사람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합리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입장인 지식과 실천적 추론 간의 개념적 연결과 같은 특정한 이론적 입장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패턴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심리적 편향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은행사례와 같은 지식귀속에 대한 사례들은 실천적인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특정한 명제가 지식과 실천적 추론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 실천적인 중요성이 낮은 경우보다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더 강한 인식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이론적 설명에 일관적으로 부합되게 나타난다. 이것은 심리적 편향과 같은 현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은행 사례를 심리적 편향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다.

---

64) 프레임 효과(framing effect) 혹은 틀 효과는 주어진 정보의 실제적 내용과는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정보에 대한 판단이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하지 말하야 할 주어진 정보의 배열이나 구성에 영향을 받는 것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심리적 편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스탠리는 프레임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 효과와 심리적 편향을 유의미하게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65) Stanley(2005), pp. 9~10 참고.

이러한 스탠리 지적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은행 사례는 일반적인 심리적 편향의 경우와는 달리 반성을 통해서도 합리성에 대한 판단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위의 심리적 편향의 경우는 부정적으로 서술된 사실에 더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세밀히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이 잘못 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든 심리적 편향의 예에서 납 1kg과 솜 1kg은 무게라는 점에서 완전히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납 1kg이 더 무겁다고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행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반성적 고찰을 하더라도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은행이 토요일에 여는지를 더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는 판단이 들며, 따라서 그 경우에는 아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직관은 쉽게 철회되지 않는다. 이는 은행 사례에 대한 사람들의 직관이 단순히 심리적 경향성에 영향을 받은 착각이 아니라 반성을 통해서도 수정되지 않는 확고한 판단임을 보여준다. 이런 차이점은 은행 사례를 심리적 편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제공한다.

두 번째, 이러한 심리적 편향에 의한 설명은 어느 경우가 심리적 편향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가 심리적 편향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인지에 대해서 전통적 불변주의 이외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지 못 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전통적 불변주의 뿐만이 아니라 회의주의적 불변주의에서도 심리적 편향에 의한 설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일상적) 불변주의의 심리적 편향 설명과 유사하게 회의주의적 불변주의는 높은 중요성과 같은 경우에 지식귀속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고, 오히려 일상적인 지식귀속이 거짓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증거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쳐서 일상적 지식귀속이 참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회의주의적 불변주의가 심리적 편향을 이용해서 이러한 주장을 펼칠 때, 회의적 불변주의를 거부하기 위해서 브라운이나 윌리엄슨은 왜 일상적인 지식귀속의 경우가 아니라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서 심리적 편향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인간의 지식이나 실천적 추론의 전제에 대한 반성을 통과한 많은 사람들이 판단조차 신뢰하지 않는 심리적 편향 설명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나타난 판단만이 착각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가? 물론 일상적 지식을 보존하려는 실질적인 동기는 있지만, 이것은 엄밀한 기준이 되지는 못 한다. 만약에 이런 기준을 세우지 못 한다면 전통적 불변주의가 은행사례에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나타나는 직관을 의미론적인 것이 아닌 단순한 심리적 실수로 여기는 것을 다른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세 번째, 심리적 편향에 의한 설명은 인식론적, 언어철학적 문제를 심리학적 사실

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심리적 편향에 의한 설명은 편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심리적 사실에 의거하여 맥락에 따라서 진리치가 바뀌지 않음에도 어떻게 은행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한다. 설령 심리적 편향에 의한 설명이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이론적 문제점을 가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식귀속의 경우에 심리적 편향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실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 해당한다. 만약에 수용할만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분명한 심리적 편향이 나타난다는 것이 사실로써 확인된다면, 이는 지식귀속에 대한 심리적 편향 설명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얻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은행 사례나 회의주의적 논변과 같은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려 시도하고, 심리적 편향에 의한 설명과 같은 것은 최대한 유보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옳다. 그리고 아직 이러한 연구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심리적 편향에 의한 설명이 아직까지 특별한 옹호나 논박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결 론

지금까지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지식의 폐쇄성을 이용한 회의주의적 논변의 등장과 동일한 지식귀속문장 발화의 적절성이 맥락에 바뀌는 것 같은 사례는 기존의 지식귀속에 대한 견해였던 전통적 불변주의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적 불변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입장 중에서 대표적인 입장이 인식론적 맥락주의이다. 인식론적 맥락주의는 “알다”와 같은 용어를 포함한 지식귀속문장이 발화되는 맥락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표현하기 때문에, 각 문장의 발화가 가지는 진리치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런 과정은 “알다”와 같은 용어가 숨겨진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숨겨진 지표가 맥락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요소를 내용으로 가지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론에서 촉발된 문제를 “알다”라는 인식론적 용어가 지니는 의미론적 특성에 의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인식론에서 나타나는 언어적인 전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전통적 불변주의는 여전히 기존의 “알다”에 대한 의미론적 불변주의를 고수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례(은행 사례, 회의주의 논변)를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WAM을 이용한 전통적 불변주의는 중요성이 낮은 경우에 올바른 것으로 보이던 지식귀속이,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 틀린 것으로 보이는 이유를 화용론적인 적절성에서 찾았다. 이에 대해서 드로즈는 WAM이 합당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뚜렷한 모순이 있을 것, 거짓 함축에 의해 설명이 이뤄질 것, 일반적인 대화규칙에 의해서 설명이 될 것,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은행사례를 화용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런 설명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 브라운은 은행사례를 화용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은 만족시키고 나머지 한 가지 조건은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고 대응하며, 드로즈의 지적이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런 브라운의 대응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각의 논변들을 통해서 보였다.

그리고 윌리엄슨 식으로 지식의 반투명성과 심리학적 편향과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은행사례와 같은 경우를 설명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윌리엄슨은 실제의 지식귀속의 진리치는 불변함에도 불구하고, 발화자나 이 발화의 진리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착각에 빠져서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지식귀속이 거짓이라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은행사례가 이차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에 의존하는 윌리엄슨의 설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높은 중요성의 경우에 지식귀속의 부정을 발화하는 것이 올바르게 보이는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윌리엄슨은 심리적 편향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지만, 이 역시 어떤 것이 확실히 심리적 편향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지도 못 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험적 자료들을 심리적인 평향에 의한 착각이라는 식으로 간주해버림으로써 더 이상의 철학적인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만약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전통적 불변주의의 대응들에 대한 비판들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면 전통적 불변주의는 새로운 대응 방식을 고안해내거나 자신의 입장을 포기해야 한다. 새로운 대응 방식을 고안해내지 못 한다면, 결국 전통적 불변주의는 “알다”와 관련된 의미론적 입장들 사이에서 유효한 선택지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알다”와 관련된 복잡한 의미론적 입장들 사이에서 논의의 지반을 단단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입장들 중에서 다음으로 제외되어야할 선택지가 무엇인가는 다시 이후에 남은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김기현(1998), 《현대 인식론》, 서울 : 민음사.

Brogaard, B(2008), “In defence of a perspectival semantics for ‘know’”,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6, pp. 439-459.

Brown, Jessica (2005a), “Adapt or Die: the Death of Invariantism?”, *The Philosophical Quarterly* 55: 263-285.

Brown, Jessica(2005b), “Williamson on Luminosity and Contextualism”

———————— (2006), “Contextualism and Warranted Assetibility Maneuvers”

———————— (2008),

Cappelen, Herman and Lepore, Ernie(2005), *Insensitve Semantics*, Oxford: Blackwell.

Cohen, Stewart(1988), “How to be a Fallabist”, Philosophical Perspectives 2, pp. 81-123.

DeRose, Keith(1992), “Contextualism and Knowledge Attributions”, Philosphy and Phenomenoligical Research 52, pp. 913-29.

———————— (1995), “Solving the Skeptical Problem”, The Philosophical Review 104, 1, pp. 1-52.

———————— (1998), “Contextualism : An Explanation and Defense”, in John Greco and Ernest Sosa (eds.), pp. 187-205.

Dretske, Fred(1970), “Epistemic Operators”, *The Journal of Philosophy* 67, 24, pp. 1007-1023.

Greco, John and Sosa, Ernest (Eds.)(1998), *The Blackwell Guide to Epistemology*, Blackwell: Oxford.

Gendler, T. S. and Hawthorne, John (Eds.)(2005), *Oxford studies in epistem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rice, H. Paul(1989), “Logic and Conversation”,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Hawthorne, John(2004), *Knowledge and Lotte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ng, Jeffery(2003), “Tense, modality, and semantic value”, *Philosophical Perspectives* 17, 1, pp. 195-245.

Kompa, Nicola(2002), “The context sensitivity of knowledge ascriptions”, *Grazer Philosophische Studien 64*, pp. 79-96.

Lewis, David(1996), "Elusive Knowledge", *Journal of Philosophy* 74, 4, pp. 549-567.

Ludlow, Peter(2005), “Contextualism and the New Linguistic Turn in Epistemology”, in Preyer and Peter (2005).

MacFarlane, John(2003a), “Epistemic modalities and relative truth”, Manuscript.

————————(2003b), “Future contingents and relative truth”, *Philosophical Quarterly*, 53, 322-336.

————————(2005), “The Assessment Sensitivity of Knowledge Attribution", In *Oxford Studies in Epistemology, 1, pp. 197-233.*

————————(2009), “Nonindexical Contextualism,” *Synthese* 166, pp. 231-50.

Moore, G. E(1963), *Philosophical Papers*, New York: Collier Books, pp. 220-222.

Nozick, Robert(1981), “Knowledge and Skepticism”, *Philosophical Explan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172-217.

Preyer, Gerhard and Peter, George (Eds.)(2005), *Contextualism in Philosophy: On Epistemology, Language, and Tru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ysiew, Patrick(2001), “The Context-Sensitivity of Knowledge Attributions'', *Nous* 35, pp. 477-514.

Schaffer, Jonathan and Knobe, Joshua(forthcoming), “Contrastive Knowledge Surveyed”, *Nous.*

Sripada, Chandra Sekhar and Stanley, Jason(forthcoming), “Empirical Tests of Interest-Relative Invariantism”, *Episteme.*

Stanley, Jason(2004). “On the linguistic basis for contextualism”, *Philosophical Studies 119*, pp. 119-146.

———————— (2005), *Knowledge and Practical Intere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chaffer, Jonathon and Joshua Knobe(forthcoming), "Contrastive Knowledge Surveyed", Nous.

Williamson, Timothy(2000), *Knowledge and its Limi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005a), “Contextualism, Subject-Sensitive Invariantism, and Knowledge of Knowledge”, *The Philosophical Quarterly* 55, pp. 213-235.

———————— (2005b), “Knowledge, Context and the Agent's Point of View”, in Preyer and Peter (2005).

Abstract

Critical Study about Classical Invariantism's Defense for Epistemic Contextualism's Attack

Byung-Il Kim
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lassical view of knowledge attribution is that the truth-value of knowledge attribution does not vary in any context without changing the epistemic circumstance. This view is Classical Invariantism. But the skeptical argument about ordinary knowledge by closure of knowledge, and Bank Case so called "contextual case" became problems for Classical Invariantism in these days. The most well-known position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is Epistemic Contextualism. Epistemic Contextualism says it is possible that utterance of a knowledge attribution sentence could have different content in different contexts. Thus Epistemic Contextualism accepts that without changing epistemic circumstance, truth-value of knowledge attribution could vary according to change of contexts like practical interests. This view is denial of Classical Invariantism. And this is also semantic approach to epistemic problem.

The first half of this paper will review backgrounds and significants of conflict between Classical Invariantism and Contextualsim for understanding this theme.

In the second half, this paper will paraphrase and criticise how Classical Invariantisms try to solve problems. The solutions of Classical Invariantisms are mainly two type. One is Warranted Assertability Manuever(WAM). Another is Timothy Williasmson and Jessica Brown's position. This positon depends on anti-luminosity of knowledge and psychological bias. In any type, the solutions of Classical Invariantism have no plausible reason to accept.

Keywords : Epistemic Contextualisn, Classical Invariantism, philosophy of language, epistemology, WAM, Jessica Brown, Timothy Williamson, skeptical argument
Student Number : 2009-20060